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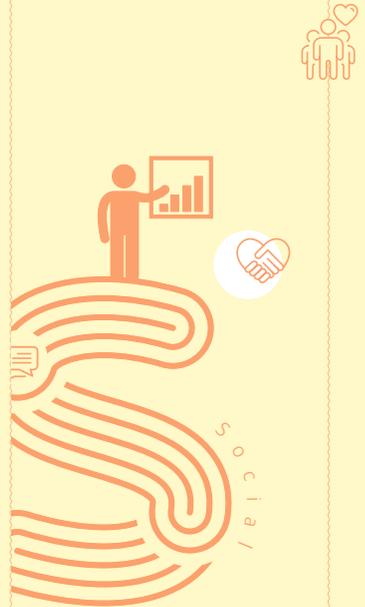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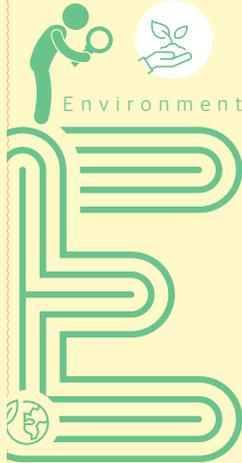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가이드

ESG A to Z

M a k i n g a B e t t e r T o m o r r o w

‘지속가능한 미래’,
ESG 경영을 위한 바이블

ESG로 세상을 읽고,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가이드

ESG A to Z

M a k i n g a B e t t e r T o m o r r o w





CONTENTS

1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ESG 06

- 1. ESG 경영의 이해 08
- 2. 중소기업 ESG경영의 필요성 15
- 3. 국내 및 글로벌 ESG 동향 23
- 4. 환경 리스크 관리 및 신사업 기회 30
- 5. 기업과 인권, 국내외 동향과 실사 가이드라인 37
- 6. 중소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44
- 7. ESG의 국내외 법률 이슈와 리스크 관리 49
- 8. ESG정보공시 및 기업평가 57
- 9. ESG 관련 시장의 변화와 마케팅 전략 64
- 10. ESG 경영과 기업 리스크 관리 69

2 ESG 경영의 주요 이슈, 금융·공급망·보고서 74

- 1. 국내외 ESG 금융 동향 76
- 2.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 금융 81
- 3. 금융기관의 ESG 전략과 지원 정책 86
- 4. EU 공급망 실사 추진과 대응방안 91
- 5. 그린·소셜 텍소노미 개념과 동향 98
- 6. ESG 경영과 공급망 내 인권 실사 103
- 7. 중소·중견기업의 ESG 사례와 시사점 108
- 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포인트 113
- 9. ESG 공시 주요 Framework-GRI, SASB, TCFD, TNFD 등 118
- 10. ESG 10문 10답 123

3 주요 업종별 ESG 우수 기업의 경영전략 및 사례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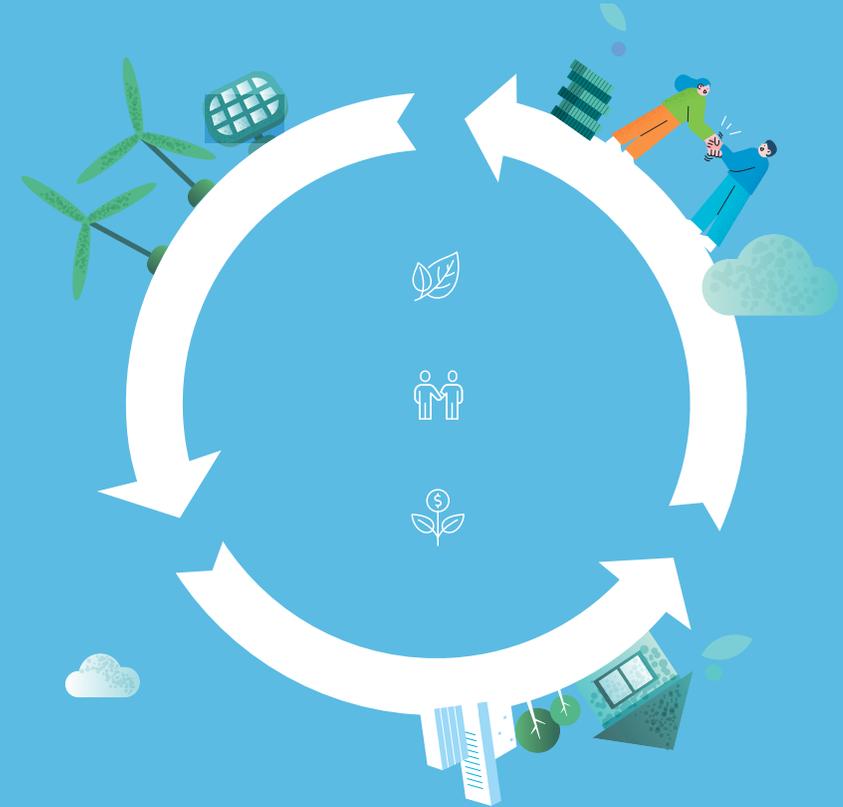
- 1. 기업시민 포스코 ESG경영 130
- 2. 현대제철 ESG경영 로드맵과 핵심과제 135
- 3. 한화솔루션의 ESG경영과 전략 140
- 4. LG화학의 ESG혁신을 통한 미래 성공전략 145
- 5. 국내기업 ESG 이행전략 수립 방안 150
- 6. SK하이닉스의 ESG 추진 사례 155
- 7. CJ제일제당의 지속가능경영 사례 160
- 8. 풀무원의 가치체계와 ESG 165
- 9. KB금융그룹의 ESG경영과 전략 170
- 10. 신한금융그룹의 ESG 프레임워크 175

1

PART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ESG

- > 기본편 08
- > 심화편 30
- > 실전편 49



ESG 경영은 이제 기업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에게도 ESG 경영은 생존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ESG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큰 흐름을 읽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01

ESG 경영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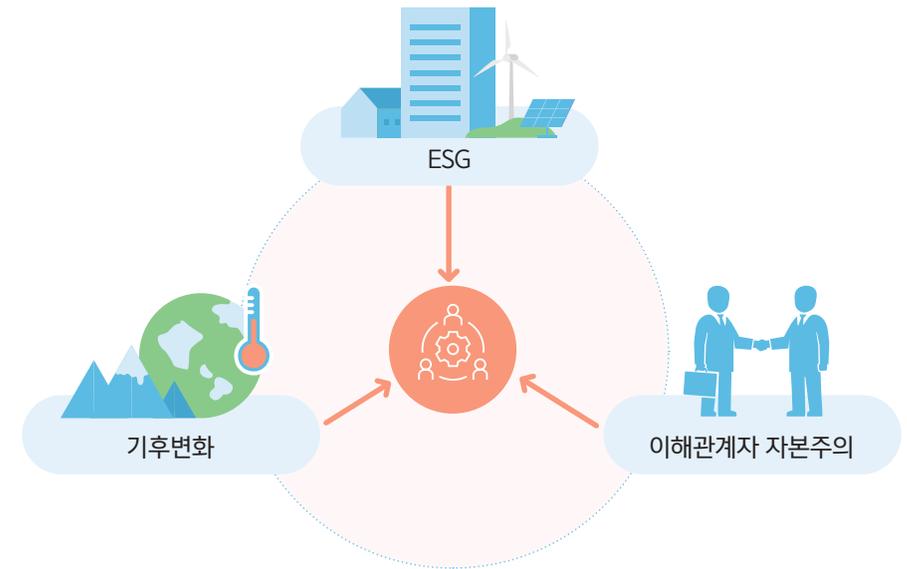
- > ESG의 의미
- > ESG 경영의 7가지 특징
- > ESG 경영 방향



강의 바로보기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

ESG의 의미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말이다.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재무적인 위험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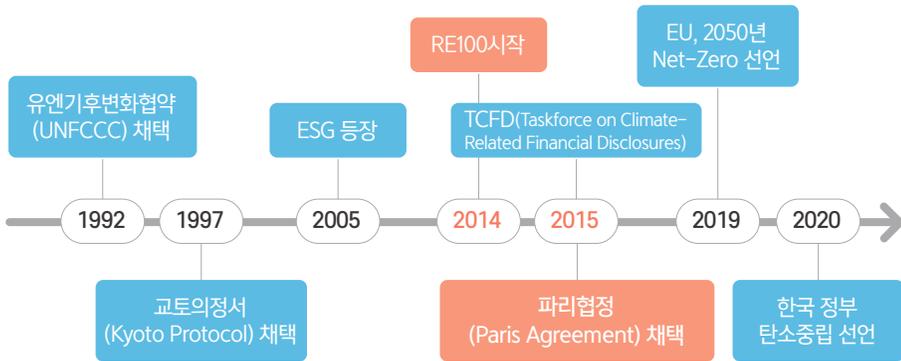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투자 위험을 관리하자는 독립적인 개념이었으나 2000년 이후 기후변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논리와 섞이면서 그 개념이 발전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3가지 개념이 서로의 논리를 강화해 가면서 최근에는 ESG가 경영, 경제, 정책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ESG



기후변화 이슈

ESG와 기후변화 이슈의 Mix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후부터이다. 2015년 파리 협정을 중심으로 RE100, Net-Zero 선언, TCFD 등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니셔티브와 가이드라인들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2020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이 '기후 위기에 따른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기후변화 이슈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ESG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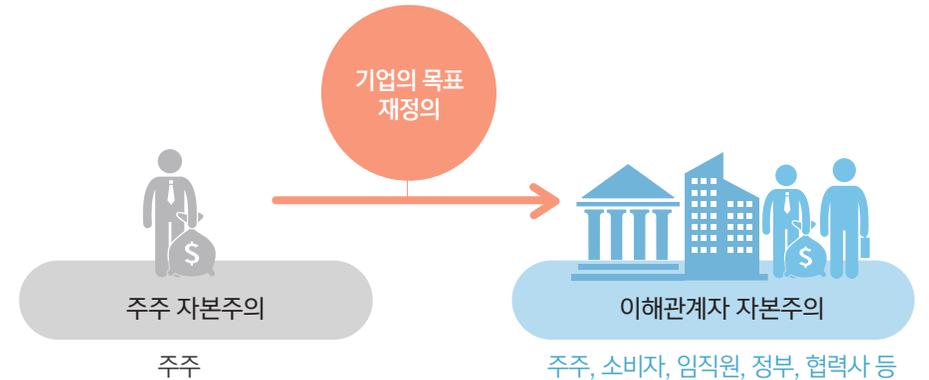
ESG 이슈

ESG의 시작 ESG는 2004~2006년 사이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보고서에서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자 가이드로 처음 등장하였다. 여기에서 ESG는 투자 자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요소로 정의되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슈

ESG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Mix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Business Round Table)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집단은 미국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연합체이다. 여기서 기업의 목표를 주주 최우선에서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정하는 선언을 하였다. 주주중심주의로 돌아가던 기업의 경영을 주주, 소비자, 임직원, 정부, 협력사 등 기업과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선언으로 인해 ESG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ESG의 정의 ESG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비재무성과(지속가능 보고서, 이사회보고서)를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레임이자 틀이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는 이슈들이지만 ESG는 이를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ESG 경영의 7가지 특징

ESG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라는 분류를 넘어 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성공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명확한 타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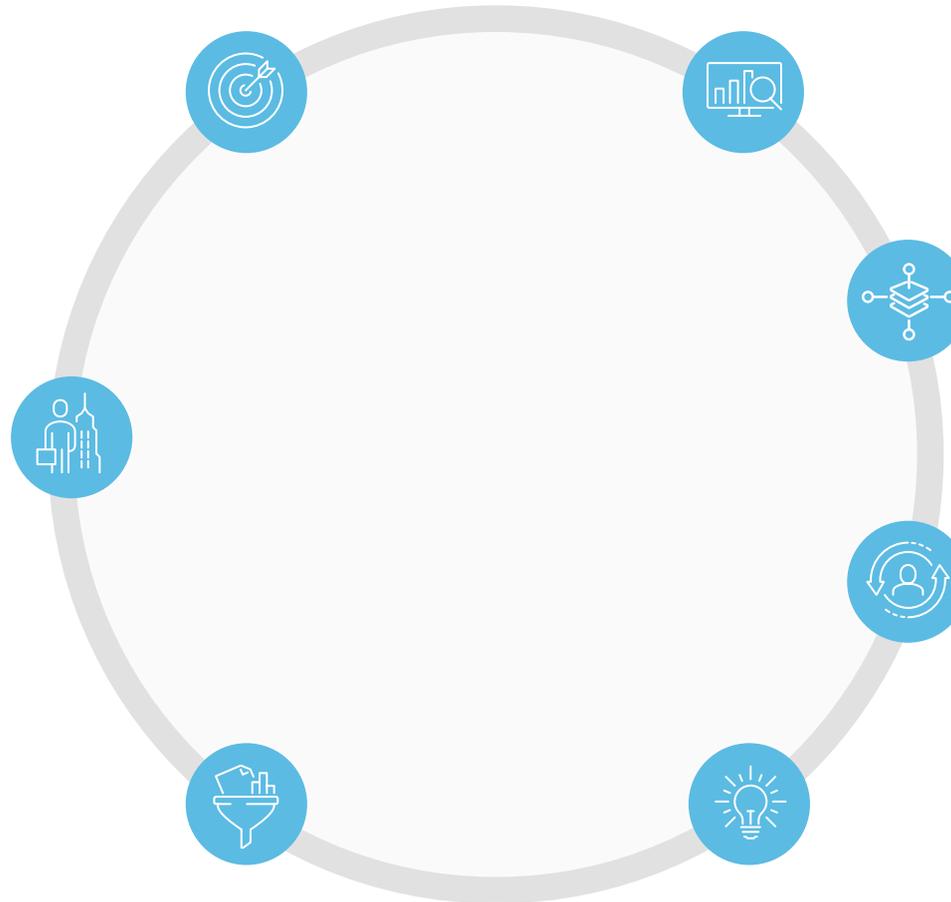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 수요자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대기업은 주요 고객인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수요자(납품처) 지향으로 ESG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거버넌스, 성과관리체계

사외이사 추천, 지속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통한 이사회의 투명한 지배가 ESG 평가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핵심평가지표인 KPI의 평가체계도 중요하다. 기업들은 CEO평가에 ESG성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FTSE 100 중 45%의 기업이 KPI에 ESG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공시, 커뮤니케이션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는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와 같은 글로벌 가이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시기준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다양한 공시기준에 주의를 기울이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측정, 평가를 통한 성과의 입증(verify)

다양한 글로벌 평가체계를 활용하거나 기업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측정체계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지표, 관리체계

ESG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모든 요소를 고르게 선택하였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E 외에 S, G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노력이 있어야 한다.

Value Chain 상의 더 큰 책임

기업의 전통적인 책임영역뿐 아니라 원자재 및 제품 폐기까지 수요자, 공급자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체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차별화, 경쟁력 포인트

SAB Miller는 모잠비크의 제1농산물인 Cassava라는 현지 원료로 맥주를 개발하여 아프리카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였다. ESG의 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결시킨 좋은 사례다.

ESG 경영 방향

ESG 경영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쉽다.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박혀 고통스러워 하는 거북이의 사진은 이제 유명하다. 하지만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어업 쓰레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사례는 ESG의 이면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ESG 경영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와 실제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에 의해 동시에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ESG, 비판적인 수용 필요

“ESG와 그 거울 이미지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둘 다 취약한 개념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정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와 실제적인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에 의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Financial Times에 실린 로버트 암스트롱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실적

Danone의 CEO 파베르의 사례도 살펴보자. 그는 ESG활동은 잘했지만 기업실적이 좋지 않아 해임되었다. 이는 사회적책임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업에게 우선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

본질적인 변화에 집중 필요

알렉스 에드먼스는 ‘ESG 파이코노믹스’라는 책에서 기업 스스로 성형적인 변화를 하기보다는 본질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에 방점을 둔 사업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덧붙이고 있다.

02

중소·중견기업 ESG경영의 필요성



- > ESG에 대한 인식
- > ESG 경영의 필요성

강의 바로보기

김정남 KPMG 전략컨설팅그룹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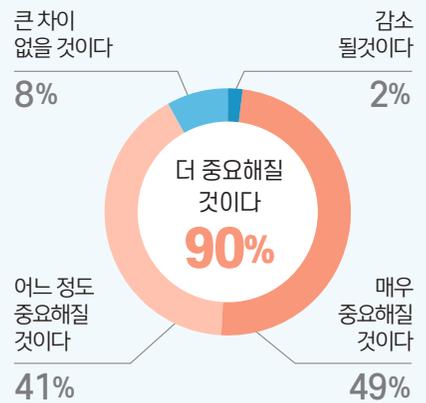
ESG에 대한 인식

ESG는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다이나믹한 영역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환경, 사회적 이슈에서 머물지 않고 이슈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ESG경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제 ESG를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경영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ESG 경영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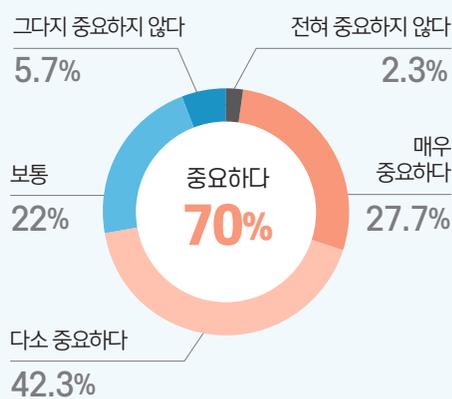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90%는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500대 기업의 CEO 중 67%는 ESG 경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ESG 경영의 중요성



* ESG 인식 설문조사 매일경제, 2021(전국 20~50대, 400명)

ESG에 대한 CEO 관심도



*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 대한상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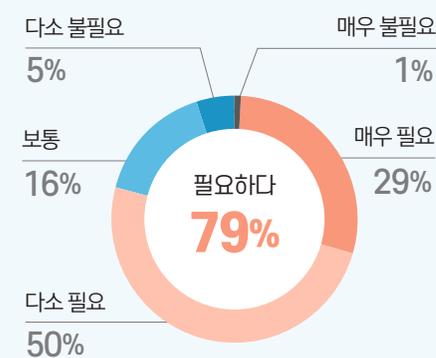
중견기업의 ESG 필요성 인식

101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9%는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비상장사보다는 상장사가, 그리고 매출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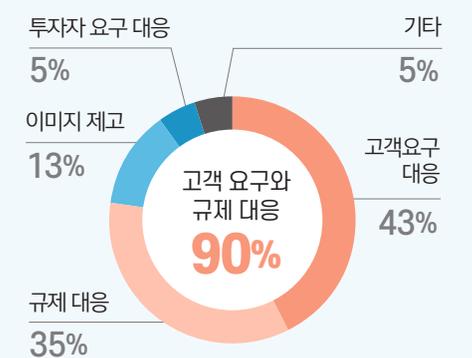
중견기업의 ESG 경영 추진 동기

중견기업이 ESG경영을 시도하는 이유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43%) 또는 규제에 대응(35%)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SG경영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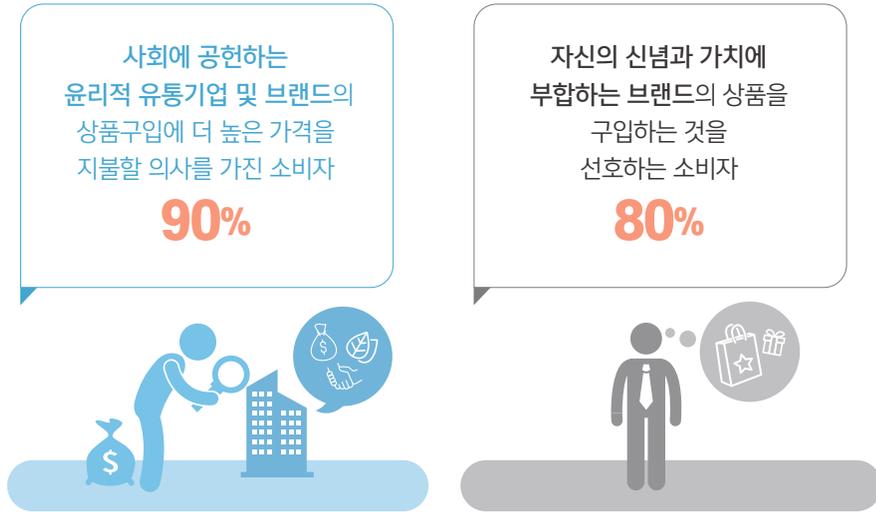
ESG경영추진 동기



* ESG 경영에 대한 인식 한국중견기업협회, 2021 (중견기업 101개사)

ESG경영의 필요성

① 고객·소비자의 인식변화



[자료출처] Me, my life, my wallet, KPMG International, 2021

ESG 경영체계로의 전환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ESG 경영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고객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 인식은 ESG 핵심요소를 갖춘 기업과 브랜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실제 구매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B2B고객 또한 기존에는 제품 생산과 판매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우선순위의 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ESG 우수기업과 제품에 대한 고객의 로열티가 높아지고 있다. 16개국 18,657명을 대상으로 한 KPM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3%의 소비자는 기업의 진실성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40%의 소비자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공급망 관리 시급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이 협력사에 대해서 ESG를 평가·실사하는 비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EU에서 추진하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과 같이 ESG 관리 범위는 공급망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급망 내 협력사 관리역량을 개선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ESG 체계 구축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② 정부 규제 강화

기업의 ESG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 이슈로서 탄소와 관련된 부분이다. 또 하나는 경영의 투명성에 관한 것으로서 ESG 정보공시에 대한 의무화와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경영활동에 있어 ESG의 환경·사회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ESG경영 필요성

- 고객·소비자 인식변화
- 정부 규제 강화
- ESG 금융 확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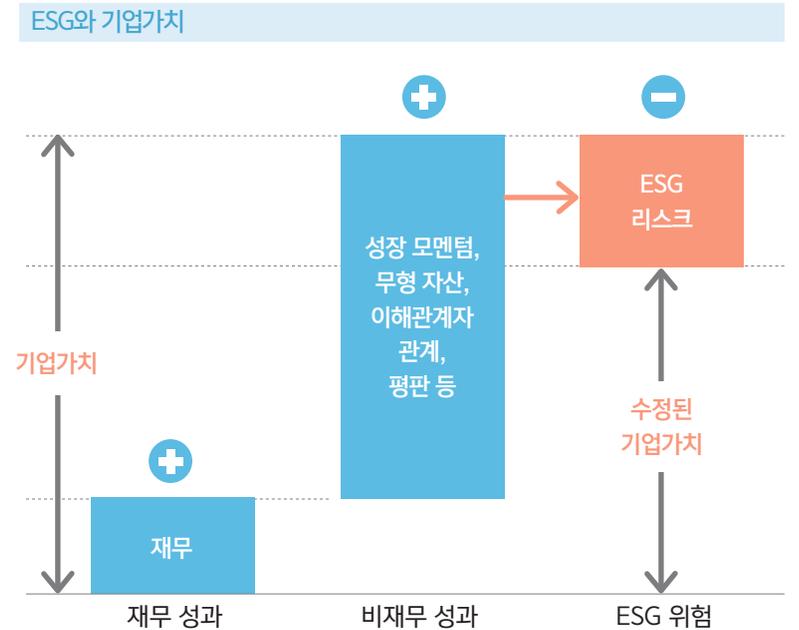
한국,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관련 정책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탄소와 폐기물 등의 환경영향을 비롯하여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

우리나라도 경영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ESG 정보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 다. 2025년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2030년부터는 코스피의 모든 상장사가 대상이 된다. 향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도 등이 일반화되고 확대될 수 있으므로 현재 규제를 받지 않는 중소·중견기업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③ ESG 금융 확대

금융권에서는 재무와 비재무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여신활동을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기업가치에 대한 리스크로 인식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반면 ESG 우수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금융권 역시 근본적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UN PRI(책임투자원칙) 서명기관 증가

UN PRI, 즉 기업의 ESG를 강화하는 투자원칙에 동의하고 서명하는 금융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6대 책임투자원칙을 선정하고 원칙 준수, 효과 증진, 활동 보고에 대한 서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서명기관은 ESG를 모든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며 주주권행사에 ESG 이슈를 활용하고 ESG 정보공개를 하게 된다. 2020년 서명기관은 3,038개, 운용자산 규모는 103조 달러에 달한다.

Opportunity & Risk

금융권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게 패널티보다는 우선적으로 혜택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SG 우수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우대, 신용한도 향상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주지만, 반대로 기업의 ESG 성과에 따라 대출 제한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소·중견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03

국내 및 글로벌 ESG 동향

- > ESG 1.0시대 - ESG금융
- > ESG 2.0시대 - 탄소중립
- > 녹색분류체계(Taxonomy)



강의 바로보기

 임대웅 BNZ PARTNERS 대표

ESG 1.0 시대 - ESG금융

2002년 UNEP Finance Initiative의 연구와 함께 ESG 1.0 시대가 시작된다. 이들은 ESG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과 관련하여 ESG를 고려하는 것이 수탁자 책무로서의 책임투자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2006년 UN PRI(유엔책임투자원칙)의 발족과 함께 ESG를 투자 의사결정에 통합시키는 것을 포함한 6가지 원칙이 발표되었다.

기관투자자들의 PRI 가입



2020년 말 기준, 세계 3,038개 기관투자자들이 PRI에 가입하였다. 이들이 운영하는 자산규모는 11.4경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주식, 채권, 대체투자 모두에 ESG를 반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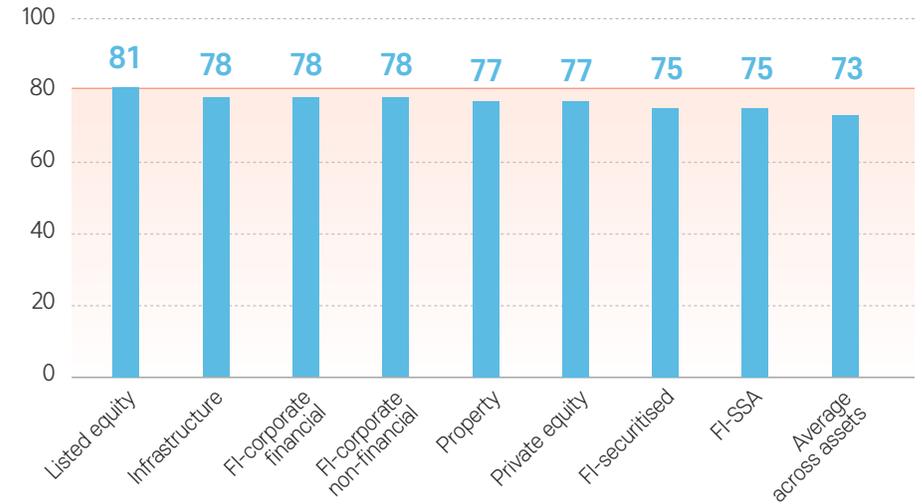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의 PRI 가입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 역시 PRI에 가입하였고 2022년 말까지 전체 기금의 50%에 대해 ESG를 고려할 것을 밝혔다. 국민연금법에는 ESG를 투자에 고려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PRI 6대 원칙

- 01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ESG 이슈들을 포함한다
- 02 소유권 정책 및 행사에 있어 ESG 이슈를 포함한다
- 03 투자대상기업에 ESG를 적절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04 투자산업 내 책임투자원칙들의 수용 및 실행을 증진시킨다
- 05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
- 06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관한 각자의 활동과 진전상황을 보고한다

자산소유자들의 ESG 반영분야



2020년 UN PRI의 조사에 따르면 연기금, 보험사 등의 자산소유자들은 주식, 인프라, 기업금융, 부동산, PE, 사모펀드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대해 ESG를 통합시키는 추세이다. 이미 80% 내외의 금융기관들이 ESG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SG의 평가기준

ESG평가기준은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Moody's와 같은 신용평가는 주로 채무 불이행률 관점에서, 주가지수로 유명한 FTSE RUSSELL지수는 공급망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로 평가한다. 또한 SASB와 같은 기관은 환경, 사회적 자본, 인적자본,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리더십과 거버넌스 등을 평가요소로 보고 있다.

ESG 2.0 시대 - 탄소중립

최근 5년, 즉 ESG 2.0시대에 주목 받고 있는 기후변화는 재무적 이슈이므로 규 제화, 제도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선진 금융기관들은 UNEP Finance Initiative 를 중심으로 투자, 보험, 은행부문의 3가지 지속가능금융 원칙을 제정하였다. 특히 책임은행원칙에서는 ESG 대신 파리기후협정이 명기된 것이 특징적이다.

책임투자원칙(PRI)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ESG에 대한 이슈들 통합



지속가능보험원칙(PSI)

보험 비즈니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ESG에 대한 이슈들 통합

책임은행원칙(PRB)

비즈니스 전략을 SDGs, 파리기후협정 및 관련 국가지역 프레임워크와 같은 개인 니즈와 사회목표에 따라 일치

파리기후협약과 탄소배출 감축

최근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에 맞춰지고 있다. 2015년 파 리기후협약 이후 세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억제하기 위 해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탄소세 인상 요구

IMF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서 현재 CO₂ 1톤당 현재 2달러 수준의 탄소세를 2030 년까지 75달러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 전기가 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BIS(국제결제은행)의 Green Swan

2020년 BIS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그린스완'이라고 정의하 고, 탄소세 등의 정책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하므로 중앙은행의 과감한 개입을 촉구하였다.

그 이유로서 기후변화의 두 가지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탄소중립을 이행 하는 과정에서 탄소세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인 Transition risk이다. 또 하나는 홍 수, 산불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 즉 Physical risk이다. 이 두 리 스크가 생산원가, 매출 등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금융시스템에 영향 을 주어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그린스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회의의 요청에 따라 2017년 FSB(금융안정위원회)는 TCFD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정보를 토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 보 공개를 요구하였다.

녹색분류체계(Taxonomy)

녹색분류체계는 금융상품이 관심을 갖는 그린비즈니스, 그린프로젝트의 모음 집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발표된 한국형 녹색채권가이드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통해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 물,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적응 및 물
- 순환경제 및 생물다양성



녹색분류체계와 그린비즈니스



04

환경 리스크 관리 및 신사업 기회

- >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이슈
- > 환경리스크 관리
- > 신사업 기회의 창출



강의 바로보기

이한경 에코엔파트너스 대표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이슈

ESG 대응 이슈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ESG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EU는 2022년 2월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표하고, 미국은 핵심·필수 품목에 대해 기후변화, 불법노동을 포함한 ESG요소를 주목할 것을 언급하였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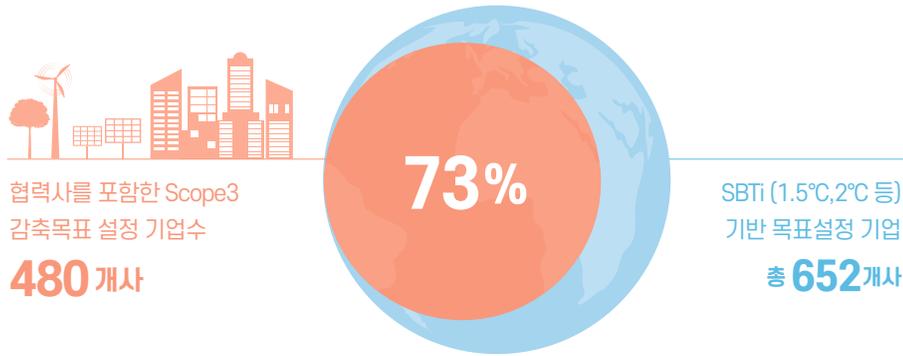


산업계 공급망 ESG 공동 대응 이니셔티브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제약, 섬유 등 산업별로 협력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협력사들 역시 공급망 및 거래기업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분야별 이니셔티브의 ESG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전기전자산업 공급망 ESG 이슈 강화

전기전자산업분야는 좀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매투기물 제로화 등의 환경목표를 모회사와 협력회사가 연계하는 등 밸류체인에서 기업들이 요구 받는 수준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애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급망을 대상으로 ESG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출처: <https://sciencebasedtargets.org>

탄소정보공개, 감축목표 설정에 협력사 참여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의 참여기업은 2018년 115개사에서 2020년 200개사로 약 73% 증가하였다. 또한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의 경우 목표설정기업의 73%인 480개사가 협력사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감축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 협력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경우에는 더욱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SG 리스크 상위 업종

S&P신용평가사,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등은 보고서를 통해 ESG 리스크가 높은 산업을 선정하였다. 주요 산업분야는 석유화학, 광물, 석탄발전 등이며 반도체, 자동차업종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환경리스크 관리

금융기관, 공공기관, 고객사 등 중소·중견기업 이해관계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ESG정보를 수집하여 거래관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은 이미 기업의 ESG 정보들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이는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
| 환경부 | 토양오염 제재 |
| 지자체 | 대기, 수질, 소음 관련 제재 |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장애인 고용 위반 |
| 공정거래위원회 | 거래상 지위 남용, 담합 |
| 한국거래소 | 불성실공시, 회계감리제재, 횡령, 배임 |
| 금융위원회 | 금융권 관련 기관 임원, 직원 제재 |
| 한국소비자원 | 리콜, 위해 정보 |
| 식약처 | 식품 및 약품 안전 제재 및 회수 조치 |

공개된 기업 ESG 정보의 예

관리공백으로 인한 환경법규 위반

에코앰파트너스의 분석(2017)에 따르면 환경법규 위반 사례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 기업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이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변경허가, 신고요건 미이행, 행정서류 미구비 등 관리 소홀이나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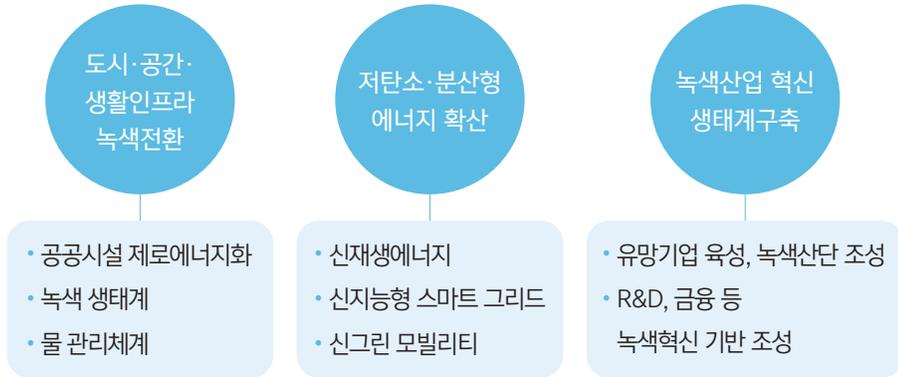
기업에 맞는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Compliance 체계의 구축이다. 따라서 기업은 최우선적으로 환경·안전법규등록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과 중점관리 물질을 선정하여 관리메뉴얼, 대응체계 등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사업 기회의 창출

비즈니스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중소·중견기업은 ESG 측면의 Hidden Risk 를 규명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업기회 탐색 방법의 하나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나 그린뉴딜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2025년까지 총 73.4조원이 투자되는 그린뉴딜 정책의 경우 그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비즈니스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볼 기회가 많이 있다.

그린뉴딜정책 개요



선진국 기후·환경규제를 통한 사업기회

EU는 2017년 발표된 순환경제 정책 패키지에서 포장재, 식품, 자동차, 전기전자산업의 중점산업에 대해 물질과 물품에 대한 재활용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25년까지 PET음료병에 재사용 rPET를 25%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선진기업 기후·환경전략을 통한 사업기회

글로벌 패션, 소재 트렌드는 이미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친환경소재, 재생소재와 관련된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소재 공급계획, 소재 수급계획 등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녹색혁신기업 사례

폐 가죽 섬유화 기술로 친환경소재 시장 공략

세계 연간 가죽폐기물 **700만**톤
재활용률은 약**13.7%**

⚠️ 소각, 매립 시 환경오염 유발

→ 국내 A기업은 물과 화학약품을 쓰지 않는 건식 방식으로 폐가죽을 섬유로 재생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로 제조된 친환경 100% 천연재생 가죽섬유를 활용하여 글로벌 스포츠 의류사, 명품 브랜드 회사, 자동차 제조사에 친환경 소재 납품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無 필터 공기정화 기술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 공략

경쟁력 있는 기술은 이미 포화상태

→ 국내 B기업은 광이온화 방식으로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까지 동시에 제거하는 무필터 공기정화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솔루션으로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공략하였다. 이는 생활환경의 질과 탄소중립의 정책 흐름에 잘 부합한 좋은 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다.

기존의 그린리모델링은 주로 **에너지 절감**에 집중

에너지절감형 활성탄 재생기로 탄소중립 솔루션 시장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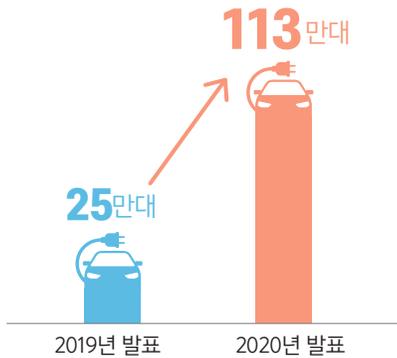
⚠️ 주기적 교체로 인해 다량의 폐기물 발생

→ 국내 C기업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과열증기를 이용하는 활성탄 재생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이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활성탄에 대한 재생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저감에 기여하여 수주경쟁력을 높인 사례로 꼽힌다.

활성탄 가격 4년간 **38%** 증가
구입량은 5년간 **5.2배** 증가

중소·중견기업 진출 유망 분야

2025년 전기차 보급 전망



※출처: 정부, 2019년 친환경차보급 로드맵, 2020년 그린뉴딜정책

2027년 폐 전기차배터리 배출 전망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전기차사용 후 배터리 거래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우리나라 전기차 폐 배터리에 대한 업사이클링 시장도 신사업 기회로 주목해볼 수 있다. 2019년에 발표한 정부의 전기차 보급목표는 2025년 25만대였으나, 2020년에 발표한 그린뉴딜에서는 113만대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 2027년 폐전기차 배터리 규모도 약 3만대 규모에서 다시 15만 대 규모로 상향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폐배터리 2nd Life 시장은 예상보다 조기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업사이클링 생태계 형성

해외에서는 이미 폐배터리를 이용하여 ESS장치, 전기차충전소, 저출력 모빌리티, 비상발전기동력원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는 이미 배터리 대여 및 교환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Car Maker와 ESS제조사, 수거전문기업, 에너지 공급 IT회사, 재활용회사, 성능평가기관 등이 관련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05

기업과 인권, 국내외 동향과 실사 가이드라인

- > 유엔 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 > 기업지속가능성과 ESG
- >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 > 기업과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강의 바로보기

유엔 글로벌compact (UN GC, UN Global Compact)

환경, 사회 이슈 관련하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2000년에는 UNGC(UN Global Compact)가 발족되어 UN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기업들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과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보고서 작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UNGC 10대 원칙 + SDGs



인권, 노동 측면의 주요 원칙

노동측면의 원칙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지지, 강제노동·아동노동·고용 및 업무차별의 철폐 등이 있다. 인권측면에서는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특히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된다.

UN 조달청의 UNGC 가입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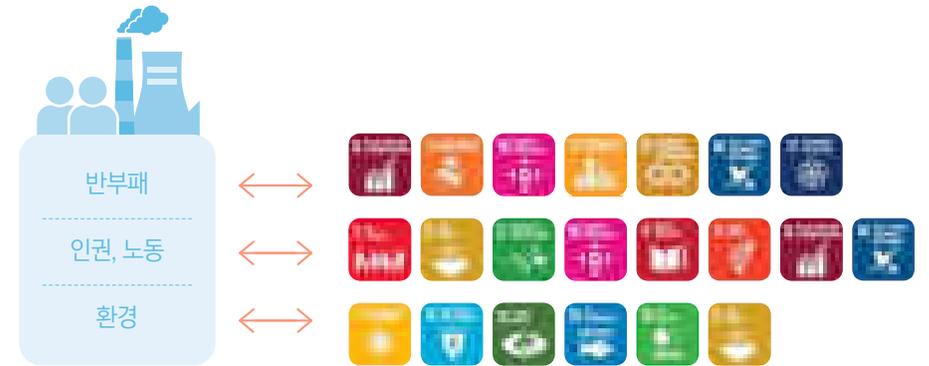
UN 조달시장이나 국제기구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UNGC 참여가 적극 권장된다. 글로벌 기업들 또한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게 UNGC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10대 원칙을 적용한 ESG 금융 상품

ESG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은 '투자'다. ESG를 잘하는 기업의 수익률과 회복탄력성 등이 검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금융, 투자에 UNGC 원칙을 반영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기업 지속가능성과 ESG

유엔총회에서 전세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SDGs는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할 국제사회의 공동 아젠다로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업은 SDGs 달성을 위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의 균형적 통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SDGs는 ESG, UNGC 10대 원칙과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다.



UNGC 10대 원칙

SDGs의 연계목표 ※출처: SDGs 그래픽 참조

SDGs 기업 대응 전략

SDGs는 기업의 핵심 전략 및 활동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기업은 SDGs 이행을 통해 미래 비즈니스의 기회를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증진하며, 정책발전과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강화, 사회와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Social 부문의 주요 이슈에 주목

ESG의 요소 중 사회(S) 측면에서는 노동관리, 안전보건, 제품안전 및 품질, 금융상품 안전, 임직원 관리, 인재육성, 공급망 관리,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등 다양한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전세계의 해결과제를 제시한 SDGs의 90% 이상은 인권 기반의 문제해결 방식이자 목표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인 기업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인권 이슈들을 잘 파악하고 대응하여 인권친화적 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인권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하는 포괄적인 이슈이므로 ESG 전반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과 인권에서의 기회 및 리스크

기업이 인권을 잘 관리했을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와 인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인재확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평판을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꾀할 수 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기업과 인권 이슈는 초국가적 경제활동의 증가와 함께 1990년대 주요 글로벌 아젠다가 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1년 제정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국가와 기업의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 등의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역시 인권·노동 이슈를 다루는 정부 부처별로 이행지침을 만들고 공공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다.



영국·프랑스의 인권 제도

영국의 '현대판 노예방지법'은 기업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강제노동, 아동착취 등의 인권유린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프랑스의 '기업인권 모니터링 의무법'은 모회사, 자회사, 협력업체, 공급업체의 인권 및 환경영향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U와 독일의 '기업실사의무화법'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통해 기업이 운영 및 협력 관계에서 인권, 환경 등 리스크에 대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 개선 및 공시하도록 한다. 불이행 시 벌금·공공조달사업 참여가 박탈되거나 수입금지 조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2023~4년부터 시행예정이다.

우리 정부 추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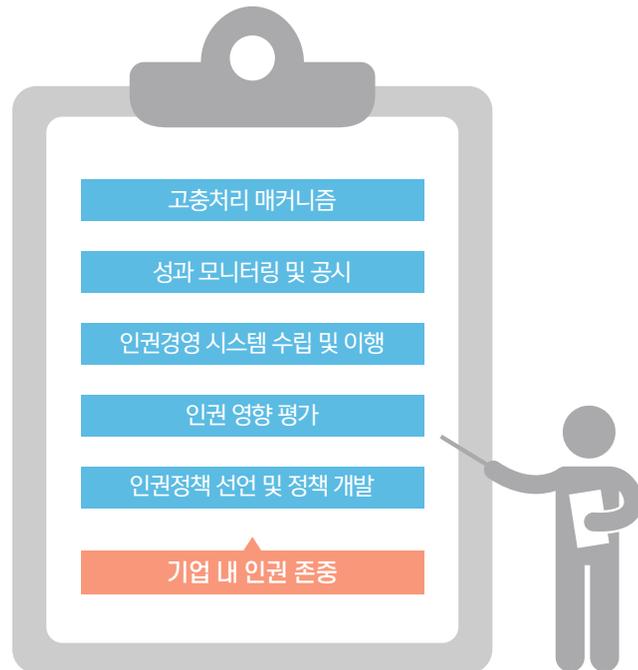
법무부와 국가인권위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및 정부의 역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기재부, 행안부 등도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항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산업부는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과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기업이 인권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에 명시된 5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인권실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인권실사는 경영 및 운영 리스크관리 강화, 인권에 대한 영향 예방 및 완화, 공급망 관리 강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 인재 강화, 잠재적인 대규모 구제비용 절감, 인권침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 생산성 및 장기경쟁력 제고, 기업이미지 및 평판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5가지 요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기업과 인권 실사 요소



인권정책 및 선언 내재화

기업 고위경영진의 인권경영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회사 지침을 마련하고 정책선언문, 인권선언문 등을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인권영향 평가

기업 운영 및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실제적,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인권 리스크에 관련된 사업 파트너를 파악하고, 영향의 심각성을 분석하여 부정적 인권 영향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인권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수립하고 경영방침 등을 임직원 및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또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서는 인권 요소를 포함한 ESG를 고려해야 하며, 사업파트너·공급망과 함께 ESG 이슈 전반에 대한 소통·협력·관리가 필요하다.

모니터링 및 공시

인권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와 함께 인권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도 마련하여야 한다. 인권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시를 해나가야 한다.

고충처리 메커니즘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고충을 처리하고, 구제하는 메커니즘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사법적 조치 혹은 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모두 고려할 수 있고 절차의 독립성, 신뢰성, 형평성 등이 중요하다.

06

중소·중견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 >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 > 국내 기업지배구조 현황
- > 중소 중견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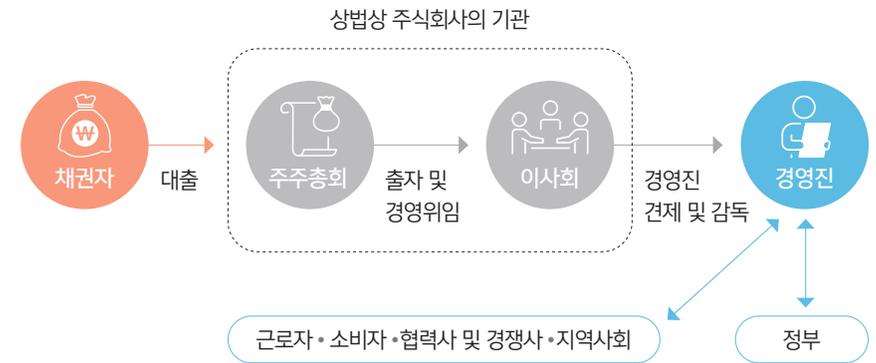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본부장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지배구조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주주, 이사회, 경영자,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매커니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누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기업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지배구조인 것이다.



대리인 문제, 대리인 이론

현대 기업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기업의 주인인 주주와 전문경영인 간의 이해가 달라서 생기는 대리인(Agency)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권 사이에 괴리도가 클수록 기업가치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리인 문제 방지 매커니즘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지분을 높이는 경영자 보상, 주주 이익을 저해하는 경영자를 감시하고 교체하는 모니터링, 인수합병을 통해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시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있다.

국내 기업지배구조 현황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펼쳐왔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수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으며, 2011년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대기업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규제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그동안 대규모기업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독립성에 관한 법률이나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채무보증·내부거래제한 등의 제도적 규제가 취약하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은 무형자산비율이 높고 외부자본조달 경험이 부족하므로 외부의 견제, 감시,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수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을 100점 만점에 30점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이사회, 공시 부문은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대규모 기업의 지배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모니터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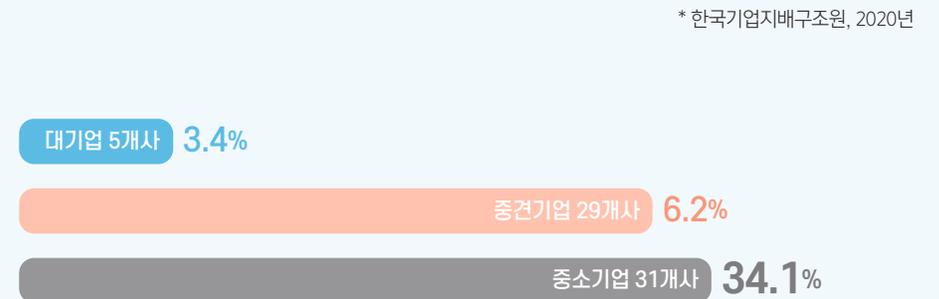
기관투자자는 주요 외부통제 주체로서 투자기업의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인해 기업가치가 저해될 경우 경영진 교체, 독립 감사 선임, 주주환원 확대 요구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은 기관투자자들의 보유지분이 적어 경영자 또는 지배주주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은 ESG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및 성과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가 건전할수록 기업경영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상승하여 총체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규모별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현황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무능한 경영진 교체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권 인수시장, 외부지배구조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중소·중견기업은 이사회 구성원 교육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의 합리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 경영권 분쟁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 경영진을 지지하는 우호지분이 될 수도 있다.

지배구조 개선방안



기업지배구조
인식 확립



이사회 기능
및 역할 강화



정보 공개 강화

이사회 기능 및 역할 강화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통제장치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주요국가의 기업들은 동종업계의 퇴직 경영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미국기업들의 경우 이사회에서 ESG 이슈를 논의하고 ESG활동을 공개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정보공개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기업설명회, IR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ESG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므로 앞으로 지속가능보고서 또는 홈페이지, IR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ESG 정보공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07

ESG의 국내외 법률 이슈와 리스크 관리

- > 기업의 변화, 법의 변화
- > 해외 ESG 소송사례
- > 국내 ESG 규제 동향
- > 중소·중견기업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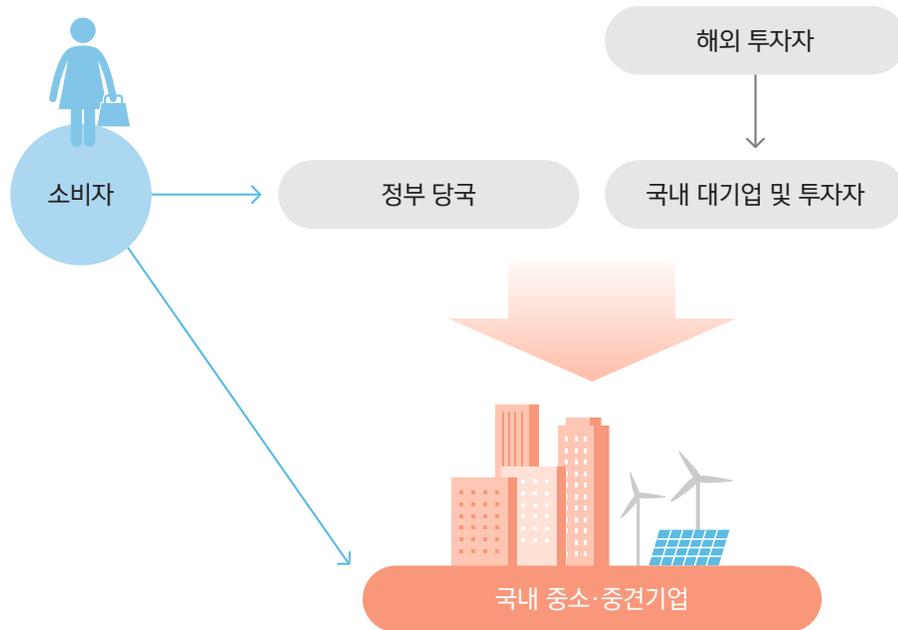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이영상 변호사

기업의 변화, 법의 변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전방위적인 ESG 압력



ESG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소비자의 요구는 정책과 규제를 변화시키고 이와 함께 투자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결국 소비자, 정부, 투자자의 압력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되는 대기업의 ESG요구까지 수용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어 이제 전방위적인 ESG 압력에 대처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ESG의 제도화·규제화

기업, 투자의 변화

글로벌 기업과 투자회사들은 ESG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들을 자사 공급망이나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기 시작하였다. '삼림 파괴'를 이유로 원자재 공급업체를 공급망에서 제외하는 사례, 연금펀드가 노동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는 사례 등 ESG를 통해 거래구조와 투자기준이 바뀌는 사례들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관련 법의 변화

ESG는 법률 등을 통해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에 대해 인권, 건강, 안전, 환경 등의 위험 요소, 즉 ESG평가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영국은 삼림파괴 행위로 수집된 원목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급망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환경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ESG 소송사례

기업의 대표적인 법률 리스크는 소송이다. ESG에 관한 실제 소송사례를 확인해보면 법률 이슈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소송사례를 살펴볼 때는 소송의 단서, 즉 소송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ESG 법률 리스크가 다른 법률 리스크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주목해야 한다.

소송·분쟁사례 E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집단 소송

GMO식용유를 100% 천연 식용유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이 소송 제기한 사례가 있다. 이런 류의 분쟁은 기업의 신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또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공급업체 소속 노동자의 인권실태 표시

원재료 공급업체가 노예 노동 또는 아동 착취 등을 통해 원재료를 생산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기업이 원재료 공급업체의 ESG 준수 여부에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송·분쟁사례 S

사내 행동·윤리강령

사내 성적 차별과 성희롱 문제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보도하였다. 기업이 행동강령, 윤리강령을 준수하거나 집행에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페루 농부와 전기생산회사와의 분쟁

전기생산회사의 배출가스가 거주지 인근 산의 빙하를 녹이는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 농부가 수해 대비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환경문제에도 소송이 빈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회사의 ESG 준수 여부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글로벌기업의 아프리카 소재 자회사가 원유 유출, 토양오염 등 불법행위를 통해 환경피해를 야기하였다며, 지역 주민들이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모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시사점을 가진 사례이다.

소송·분쟁사례 G

회사의 고용 및 인사정책

회사의 고용인사정책이 남성·여성 또는 인종적 포용성 등을 구현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이에 관하여 일반인들을 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다.

국내 ESG 규제 동향

우리나라에도 이미 ESG 관련 다양한 법률, 즉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나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안전 규제, 산업안전 규제 그리고 그린워싱에 해당될 수 있는 허위·과장 공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렇게 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관련 소송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안전 분야의 ESG 규제 강화

새로운 환경규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환경법규 위반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대비 2018년을 비교해보면 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사업장 수의 증가 추세보다 환경법규 위반 단속건수가 월등한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환경 관련 제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러 제재조치 중 허가취소와 같은 고강도의 제재조치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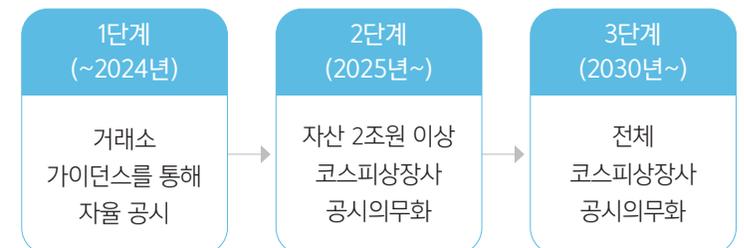
산업안전 분야의 ESG 규제 강화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주로 근로·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제품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은 크게 2가지이다. 먼저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총책임자에게 안전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안전의무의 범위를 도급용역 위탁으로 인한 제3자의 종사자에게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ESG 입법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SG 공시 강화

해외 사례를 보면 허위·과장 공시, 즉 그린워싱이 현재 가장 큰 ESG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 ESG 공시자료가 불성실한 경우, 즉 실제와 어긋나거나 과장되어 있다면 소비자, 투자자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할 수도 있고, 심각한 사례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 R&R 개선 및 법률 전문가의 사전검토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ESG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검증이 가능한지 또 정확한 내용인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중소·중견기업의 시사점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 이슈와 법률 리스크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일이다. 로드맵의 기초요소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ESG 영역에서 회사가 처한 위치와 상황, 즉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법률 리스크의 단서가 무엇인지, 즉 분쟁과 책임의 단서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다. 셋째는 ESG 법률리스크가 다른 법률리스크와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다. 넷째는 ESG 정책, 규제, 법집행 및 소송동향을 확인하여 회사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기업들이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을 요약한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ESG 법률리스크 관련 기업 실천사항

☑ 기업의 ESG 지표, 성과에 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ESG경영, 전략 등에 관해 근거 없는 낙관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 노동, 환경 관련 이슈와 관행에 특별히 더 주의한다.

☑ 회사에 적합한 ESG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ESG 법률리스크 관리·예방 사례

2013년 A 회사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수백만 고객 계정이 해킹되는 사태를 겪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지배구조, 이산화탄소 배출, 인적자원 관리 등 ESG 모든 영역에서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ESG 평가기관인 MSCI로부터 동종업계 최고의 평가를 받았으며, 회사의 주가는 2011년 이후 2,000% 이상 상승하였다.

08

ESG 정보공시 및 기업평가

- > ESG 공시체계
- > 주요국가의 공시 규제 현황
- > 국내 ESG 공시제도
- > ESG 평가
- > ESG 관련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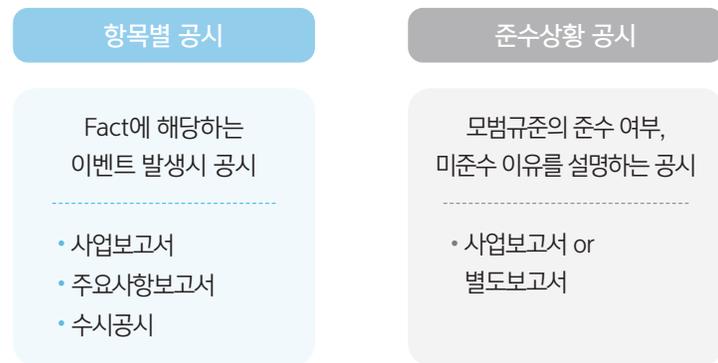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

ESG 공시체계

ESG 공시는 항목별 공시와 준수상황 공시의 2가지 방법이 병존한다. 항목별 공시는 전통적인 의무공시의 한 방법이고, 준수상황 공시는 영국에서 시작된 원칙 중심 공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항목별 공시(Line Item Disclosure)

이사회현황, 임원구성,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등 항목별 현황(Fact)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공시하는 방법이다. 다만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는 허위공시나 중요정보 누락 등의 부실공시를 할 경우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또한 수시공시는 불성실공시로 벌점이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까지도 가능하다.

준수상황 공시

모범규준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준수(Comply) 여부, 또는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Explain)하는 공시 방법이다. 대체로 '준수'보다는 '설명' 방식을 더 중요시한다. OECD회원국의 83%가 채택하는 방식이며, 공시매체는 주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거나 지배구조보고서와 같은 별도의 보고서를 이용한다.

주요국가의 공시 규제 현황

ESG 관련사항은 정보공개, 즉 공시를 해야 한다. 먼저 도입된 것은 지배구조 공시(G)이며 환경(S)과 사회(S)에 관한 공시는 특히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공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배구조(G) 공시

영국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준수상황을 공시하고 이를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에서 리뷰·평가·공개한다. 일본은 영국식 Governance Code에 대한 준수상황 공시를 상장사에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항목별 공시로서 사업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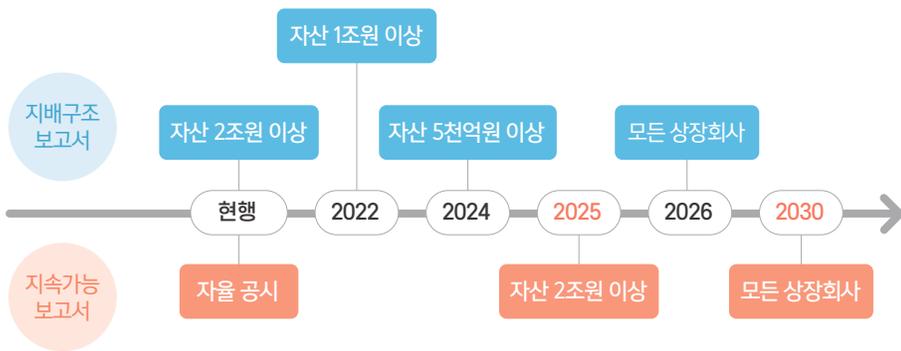


환경(E), 사회(S) 공시

EU는 비재무정보보고지침을 만들어 회원국들의 입법을 통해 규제화한다. 홍콩은 모든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나 별도보고서 등을 통해 E, S상황을 공시한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자율공시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ESG 공시제도

우리나라는 지배구조보고서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2026년부터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된다. 지속가능보고서의 경우는 현재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지만 2030년부터 전 상장회사에 의무화된다.



환경 E · 사회 S 공시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녹색경영 관련 정보이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사용량을 기재하며 녹색인증기업은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을 기재하게 된다.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

2020년 한국거래소는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사회 및 경영진 역할, 중요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절차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배구조 G 공시

사업보고서

항목별 공시로서 이사회 구성, 위원회, 사외이사 전문성 등 지배구조 관련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공모법인, 채권상장법인, 500명 이상 기업, 상장폐지법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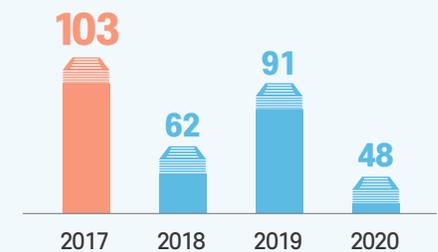
지배구조보고서

지배구조의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현황, 미준수 사유를 기재하는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의 공시이다. 2022년부터는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공시가 의무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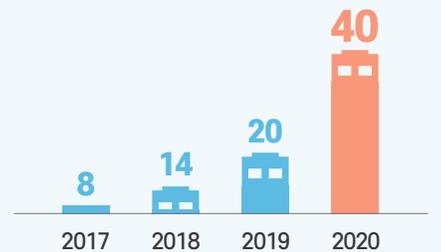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사의 ESG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 발간 기업은 2017년 103개에서 2020년 48개사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한국거래소에 자율 공시 형태로 제출하는 상장회사는 2017년 8개사에서 2020년 40개사로 증가 추세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수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기업수



ESG 평가

ESG 평가는 비재무적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의 관리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도입취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자본시장에서의 책임투자 문화 확산에 있다. 평가결과는 기관투자자들의 종목 선정 및 투자 의사결정, 한국거래소의 ESG지수 개발에 활용된다.

평가기관의 종류



평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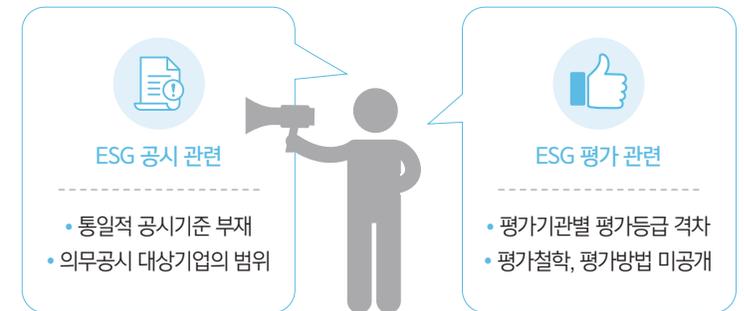
국내 전문평가기관은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ESG평가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용평가회사는 SRI채권(사회책임투자채권)에 대한 인증업무를 시작으로 ESG평가를 하고 있다. 해외의 대표적인 ESG평가기관은 RobecoSAM과 MSCI가 있으며 특히 Moody's, Fitch, S&P는 ESG 평가결과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방법

대표적인 국내 전문평가기관으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있다. 각 기관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주기, 데이터 수집방식, 등급부여 등 평가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ESG 관련 쟁점

ESG 공시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ESG공시가 점점 규제화되면서 유사한 논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SG 공시

현재 400개 이상의 ESG 공시기준이 난립하는 상태이다. TCFD, GRI, SASB 등 대표적인 공시기준조차 적용영역과 주안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무공시 대상기업의 범위도 EU와 영국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일괄적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ESG 평가

ESG 평가도 평가기관별로 등급의 차이가 큰 편이다. 국내외 평가기관 간의 등급 차이가 3단계 이상인 기업이 22개사나 되고, 국내 평가기관 간에도 편차비율은 60%가 넘는다. 또한 국내 평가기관의 경우는 평가철학, 평가방법, 평가결과, 평가보고서 공개에 대체로 소극적인 편이다.

09

ESG 관련 시장의 변화와 마케팅 전략

- > ESG 경영의 등장 배경
- > ESG 경영의 필요성과 방향
- > ESG를 위한 마케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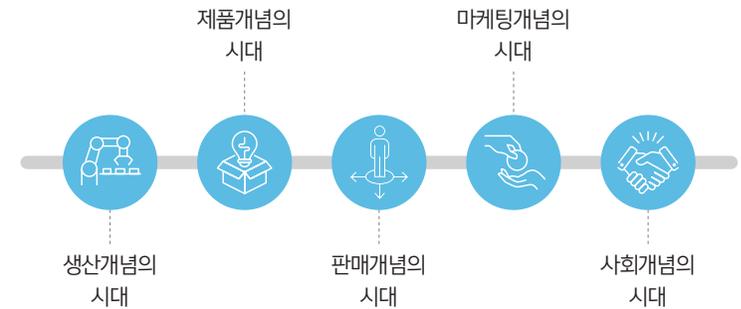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유원상 고려대학교 교수

ESG 경영의 등장 배경

2021년 전경련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CEO 가운데 66.3%는 ESG에 관심이 많으며, 10대 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이 이미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ESG 경영은 필연적인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이러한 ESG의 등장 배경은 경영학, 경제학, 마케팅 등의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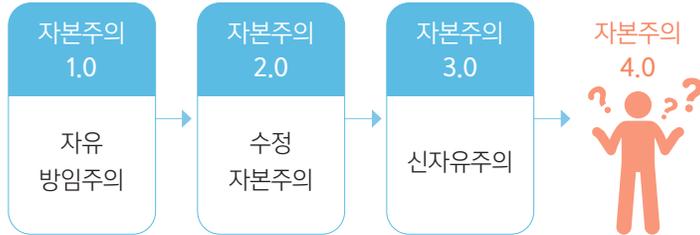
경영학의 관점 - 시대정신의 진화



'생산개념의 시대'에는 2차산업과 함께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기업의 경영은 비용절감, 효율적인 생산성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성능, 속성, 품질 등 차별화된 제품에 관심을 두는 '제품개념의 시대'가 열린다. 이후 판매와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체계적인 판매 영업조직과 인력을 갖춘 '판매개념의 시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현재는 고객만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마케팅 개념의 시대'에서 다시 '사회개념의 시대'로 진입하는 과도기에 있다. 즉 기업이 사회 전반, 협력사, 투자자, 고객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Value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경제학의 관점 - 자본주의의 진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방임주의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공공부문 간섭·통제 중심의 수정자본주의, 정부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로 이어진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사회적 가치, 공유가치의 창출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4.0시대에 진입하였다.

마케팅의 관점 - 소비자의 진화



Philip Kotler는 제품을 사야할 이유를 설득하는 Market 1.0시대, 제품을 사고 싶도록 만드는 Market 2.0시대로 구분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기업의 추구 가치를 선택하는 Market 3.0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ESG 경영의 필요성과 방향

자본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는 기업의 ESG 활동, ESG 경영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기업은 이제 건전성, 높은 도덕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ESG 활동은 이처럼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사회와의 소통과정이자 기업의 생존 조건이 되었다.

고객가치의 진화



경쟁이 심화될수록 고객가치도 진화된다. 고객가치는 안전성이나 가성비로 승부하던 기능적 가치에서 디자인이나 추억 등의 감성적 가치로, 다시 제품으로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라이프스타일적 가치로 변화해왔다. 그리고 이제 자기 초월적 가치(Self-transcendence)로 대변되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ESG를 위한 마케팅 전략

ESG는 이제 시대적 대세이므로 기업은 빠르게 관점과 사고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전 조직적으로 체화하여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리더십을 선점하여야 한다.

ESG 경영을 위한 3가지 원칙

진정성

진정성 확보에 실패한 기업은 ESG Washing, 즉 ESG를 하는 척만 한다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

일관성

ESG 경영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

연계성

자동차 기업의 교통안전캠페인처럼 업의 본질과 연계한 ESG활동을 해야 한다.



고객 참여와 체험의 중요성

기업은 주력사업을 추진하면서 ESG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ESG활동은 고객과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고객의 체험을 기업의 브랜드에 축적해야 한다.

10

ESG 경영과 기업 리스크 관리

- >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 >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 > ESG 리스크 관리의 5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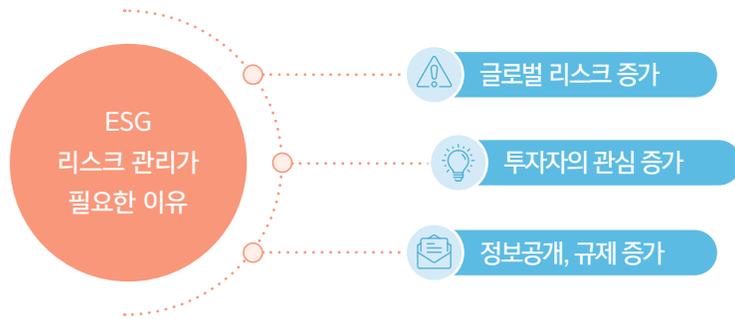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류종기 IBM 전문위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과 겸임교수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리스크 관리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리스크 또는 기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리스크와 투자자의 관심, 정보공개 및 규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글로벌 리스크의 증가

2021년 세계경제포럼은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영역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글로벌 리스크를 예측하였다. 현존하는 위험으로는 감염병 확산, 생계 위기, 극심한 기후변화 등 사회나 환경 리스크가 상위에 랭크되었다. 또한 3~5년 내의 위험으로는 자산 버블 증폭, 물가불안, 원자재 가격 충격, 부채위기 등 중소·중견기업이 우려할만한 리스크가 다수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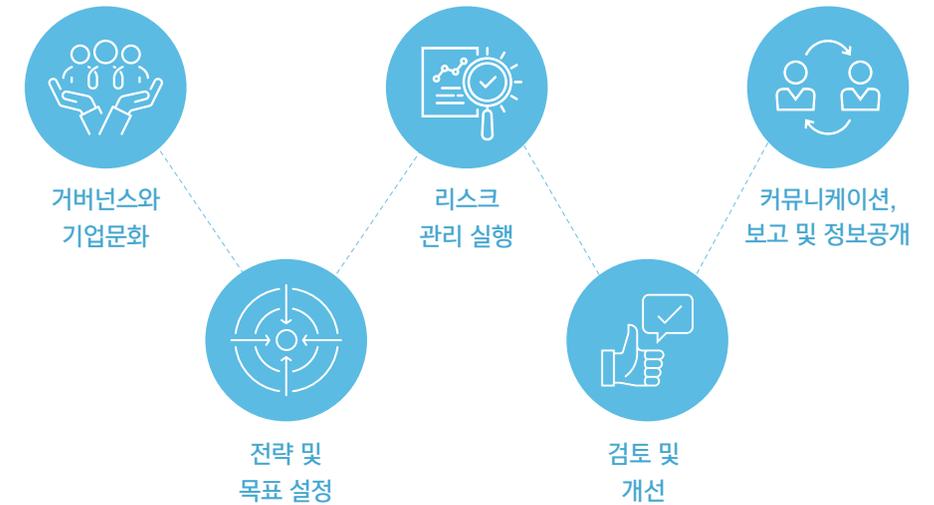
투자자의 관심 증가

ESG평가기관인 Sustainalytics에서는 기업의 평가점수를 비롯하여 경쟁사들과의 점수 비교, 해당기업의 중요한 ESG이슈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투자자들과 평가자들은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COSO-WBCSD 전사적 리스크관리(ERM) 프레임워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시 ESG 리스크에 특화하여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ERM 적용 프레임워크로 제시되었으며, 2021년에 개정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모범 기준에도 반영되었다. 즉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5가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ERM 적용 프레임워크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이유

리스크 관리의 장점과 효과로는 여섯 가지가 제시된다. 즉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강화,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통일된 정의나 용어 사용, 효과적인 자원 투입 개선, ESG와 관련된 기회 창출 강화, 비즈니스에서의 운영 효율성, ESG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및 투명성 개선 등이다.

ESG 리스크 관리의 5단계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그 기준, 즉 ESG 리스크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모범규준을 참고하면 좋다. 지금부터는 ESG 리스크 관리의 다섯 가지 단계를 살펴보자.

1. 거버넌스와 기업문화

- ① 우선적으로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진으로 보면 된다.
- ②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운영체계를 수립한다.
- ③ ESG를 기업의 조직문화로 인식하고 내재화 방안을 만든다.
- ④ ESG를 기업의 핵심가치로 선언한다.
- ⑤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위해 좋은 인재를 고용·교육하고 역량을 개발하며 유지하는 활동을 한다.



2. 전략 및 목표 설정

- ① ESG 리스크를 고려한 사업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금융)·제조·인적·사회적·자연·지적자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 ②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를 정의한다.
- ③ 우리 기업이 대응 가능한 대체전략을 검토한다.
- ④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3. 실행 및 성과 달성

- ① ESG가 우리 기업에 어떤 기회요인 혹은 리스크가 되는지 식별한다.
- ② 리스크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도 등을 통해 리스크의 중요도를 평가한다.
- ③ 중점관리 대상으로 우선순위화할 리스크를 선정한다.
- ④ 해당 리스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한다.
- ⑤ 다양한 틀을 통해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평가한다.



4. 검토 및 개선

- ① 실행된 리스크 관리가 기업에 미친 실질적 변화를 평가하고 측정한다.
- ② 현재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리스크 관리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한다.
- ③ 리스크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



5. 커뮤니케이션, 보고 및 정보공개

- ① ERP와 같은 IT시스템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추출한다.
- ② 기업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리된 리스크 정보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공개할 것인지 고려한다.
- ③ GRI, TCFD, SASB와 같은 공시 표준들을 활용하여 ESG 리스크 관련 성과를 보고한다.



PART 2

ESG 경영의 주요 이슈, 금융·공급망·보고서

- > 금융편 76
- > 공급망편 91
- > 보고서편 113



각국 정부에서는 수준 높은 지속가능금융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구체화·규제화하고 있다. 이제 자본의 흐름은 텍스노미(Taxonomy)에 부합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향하고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도 대기업과의 ESG 협력 활동과 공시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해 내부 시스템 개선 및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때이다.

11

국내외 ESG 금융 동향

- > TCFD 권고사항
- > TCFD 관련 주요 흐름
- > TCFD 전환리스크 분석 및 전략 사례
- > 중소·중견기업의 TCFD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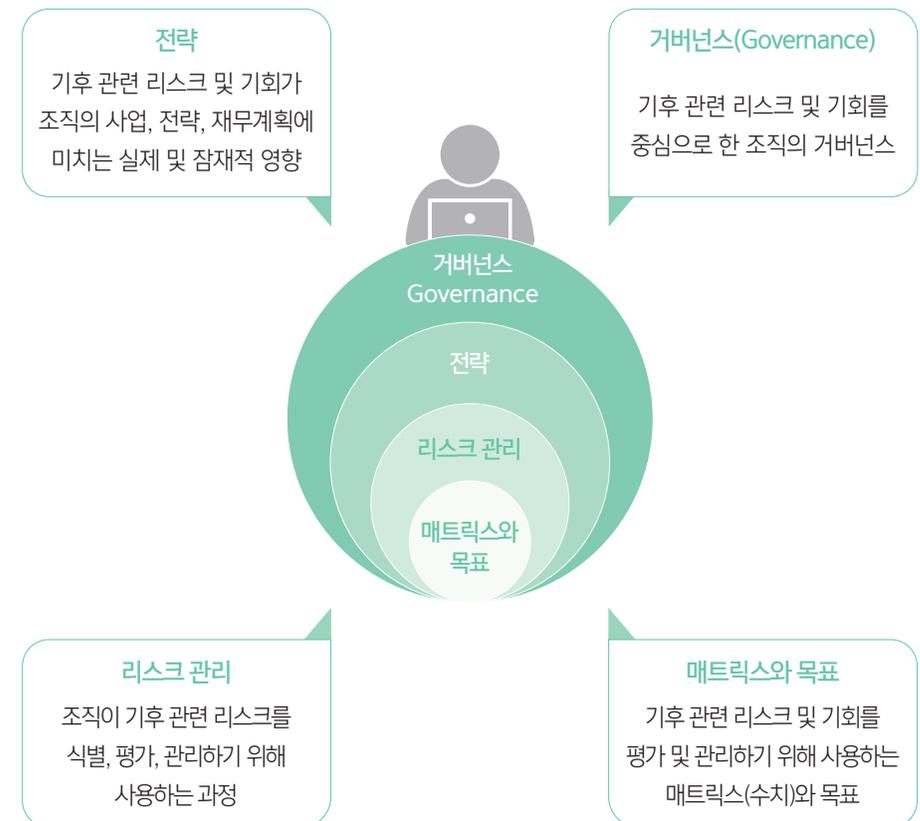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임대웅 BNZ PARTNERS 대표

TCFD 권고사항

2017년 FSB(금융안정위원회)가 발표한 TCFD 권고안은 기후변화를 재무 영역에 통합하는 활동을 주류화시킨 가장 강력한 표준이다. TCFD 권고안의 4가지 핵심요소는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매트릭스다. 2021년 7월 기준 2,366개 글로벌 기관이 TCFD 지지선언을 했으며 그중 자산운용사·은행·연기금·보험사 등의 금융부문은 1,149개 기업에 달한다.

TCFD 권고사항의 핵심요소



TCFD 관련 주요 흐름

2017년부터 해외금융기관들은 UNEP FI와 함께 은행 여신 프로세스에 TCFD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8년에는 EU 금융안정국에서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한 액션플랜을 도입하였다. 이후 IMF, BIS, NGFS, BCBS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거쳐 2021년에는 G7국가들이 TCFD 의무공시화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TCFD 전환리스크 분석 및 전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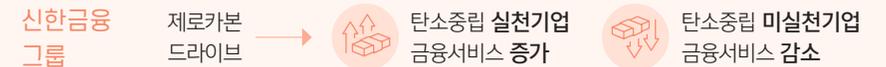
기업A의 전환리스크 분석 사례

TCFD의 기후 시나리오에 기반한 Forward-looking 접근법을 기초로 한 전환리스크 분석 방법의 예이다. 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CO² 기준 연간 1만톤인데, IMF가 제시하는 2030년 기준 CO² 톤당 \$75를 적용하면 CO² 규제준수 비용은 \$750,000이 된다. 환율 1,250원/달러를 적용해보면 이들의 탄소 관련 규제준수 비용은 2030년 한 해에 약9.4억원에 달하게 된다.



블랙락, 신한금융그룹의 TCFD 전략

전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발표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이를 실제로 구현하여 주목 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의 TCFD 대응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녹색금융이 제도화되면서 TCFD 기반의 기후 환경 정보 공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기후리스크포럼을 런칭하였으며, 국회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런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고려할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자.



1 TCFD 관련 흐름에 대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EU탄소국경조정제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TCFD와 관련된 글로벌 추이에 귀 기울여야 한다.

2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극 참여

TCFD,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PCAF(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산정)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목해야 한다.

3 탄소중립·ESG·금융정책 동향에 선대응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기후 리스크 및 녹색금융과 관련하여 BIS/BCBS(은행감독), IAIS/SIF(보험감독), IOSCO(기관투자자감독)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환경부 등의 정책동향을 읽고 대응해야 한다.

4 기후변화 및 ESG 대응 역량·체계 강화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재무영향 분석, K-Taxonomy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개선 등 능동적인 내부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12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 금융

- > ESG와 녹색전환
- > 지속가능금융시스템
- > Green Taxonomy와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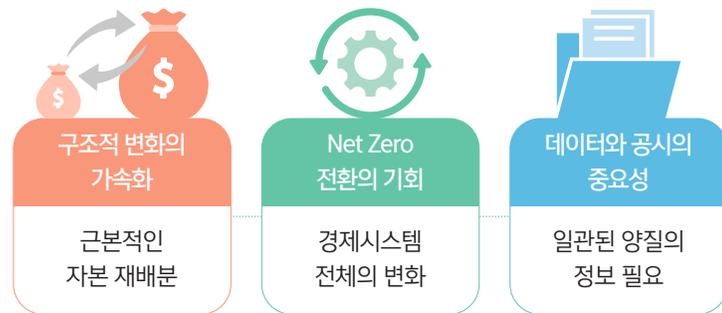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ESG와 녹색전환

2020년 이후의 ESG는 궁극적으로 녹색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ESG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경제·사회의 발전과 기업 생존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비즈니스의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ESG를 통해 규제·지원한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은 이를 이해하고 빠르게 대비해나가야 한다.

BlackRock Larry Fink 회장의 2021년 CEO Letter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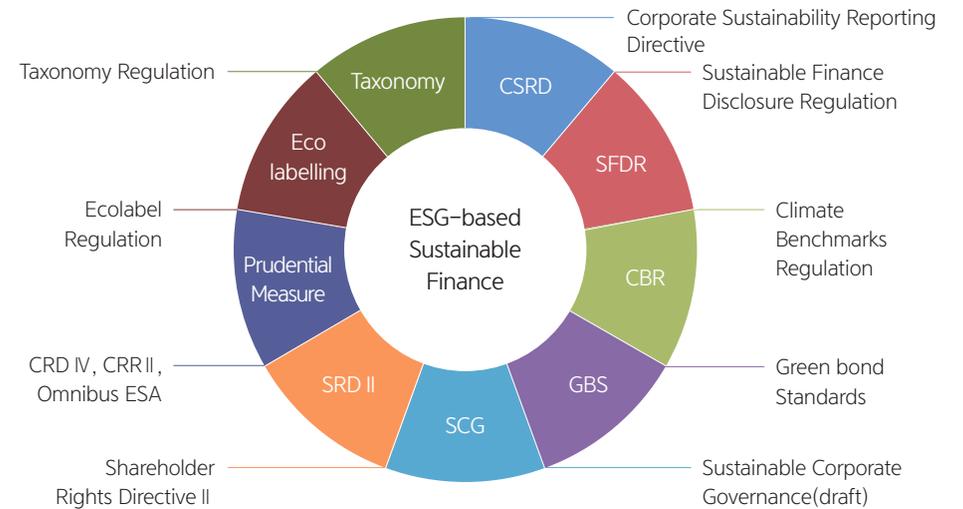
P4G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

2021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서울선언문에서도 금융 관련 내용들이 언급되었다. 월드뱅크는 향후 5년간 총 지원금의 35%를 기후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 밝혔고, 유럽투자은행은 2030년까지 환경 지속가능한 분야에 1조 유로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저탄소 경제 전환에서 금융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본의 흐름을 전환시켜 기업, 산업, 경제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유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금융시스템

국제금융기구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가능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게 수준 높은 정책과 규제를 요구하였다. 즉 지속가능금융전략의 수립과 Sustainable Taxonomy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활동에만 투자하거나 금융서비스를 받도록 하였다.



EU의 ESG 규제 및 지속가능금융시스템

전 세계는 ESG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중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강력한 규제인 EU의 신ESG 규제 패키지이다. EU는 지속가능금융만이 우리 사회의 경제·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또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의 첫 번째는 바로 텍소노미 구축과 그에 따른 규제들이며, 이를 통해 자본 흐름의 방향을 전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 변화협정을 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Green Taxonomy와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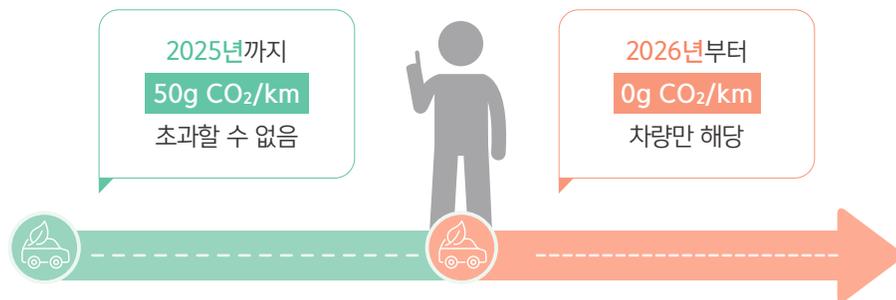
2023년부터 공시가 의무화된 Taxonomy 규정은 지속가능투자를 위해 환경적 관점에서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식별하는 분류시스템이다. EU의 경우 기업은 관련 활동을 재무지표로 공시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에서 Taxonomy에 부합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반면 미국, 유럽, 한국 등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규제의 강화

예시 | 저탄소 기술 제조

EU의 경우 2025년까지는 km당 50g 이하로 배출하면 저탄소 자동차로 인정 받는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만 저탄소 자동차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하였다.

저탄소 기술제조의 (기후변화) 완화기준



비즈니스의 기회

예시 | 수소제조

텍소노미에서 규정한 수소 제조가 기후변화 완화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3가지, 즉 제조과정의 CO₂ 직접 배출량, 전기사용량,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전기의 평균 탄소집약도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원청업체의 관심을 받게 되고 다양한 투자 또는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인 목표 수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미래경쟁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저탄소 경제 체제를 고려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회요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SG 경영을 위한 5가지 실천방안

- 리스크 또는 가치를 창출하는 ESG factor 확인
- ESG와 리스크 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명확한 역할 부여
- ESG 프레임워크, 기후관련 재무공시 기준의 보고
-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 Taxonomy에 따라 ESG 기회를 반영한 BM 개선

13

금융기관의 ESG 전략과 지원정책

- > ESG 기후금융의 원년, 2021
- > ESG 금융 방식
- > ESG 금융 사례
- > ESG 금융 지원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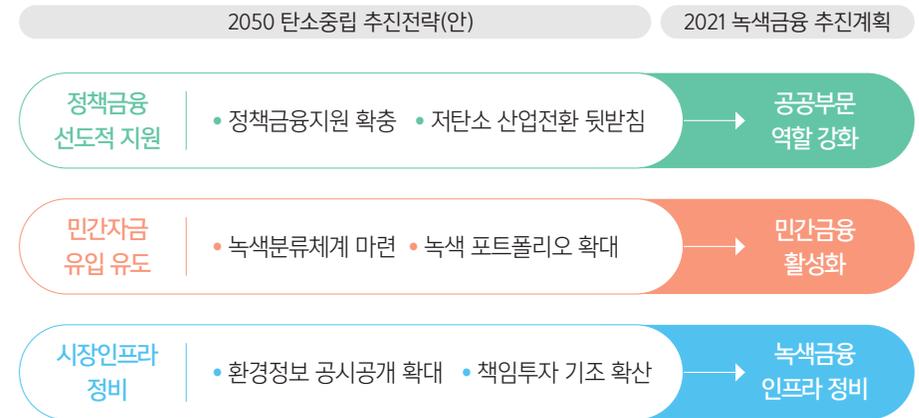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유인식 IBK기업은행 전략기획부 ESG경영팀 팀장

ESG 기후금융의 원년, 2021

글로벌 ESG 투자자산은 2020년 40.5조 달러에 이르렀고 2030년에는 130조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ESG는 투자결정의 핵심이 되었으며 글로벌 금융기관의 투자규모는 특히 2021년 들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금융 역시 ESG의 경영 내재화가 시작되어 2021년에는 국내 100여개 금융기관이 모여 기후금융지시선언식을 하였다. 이제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2021년은 ESG, 기후금융(녹색금융)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50 탄소중립 뒷받침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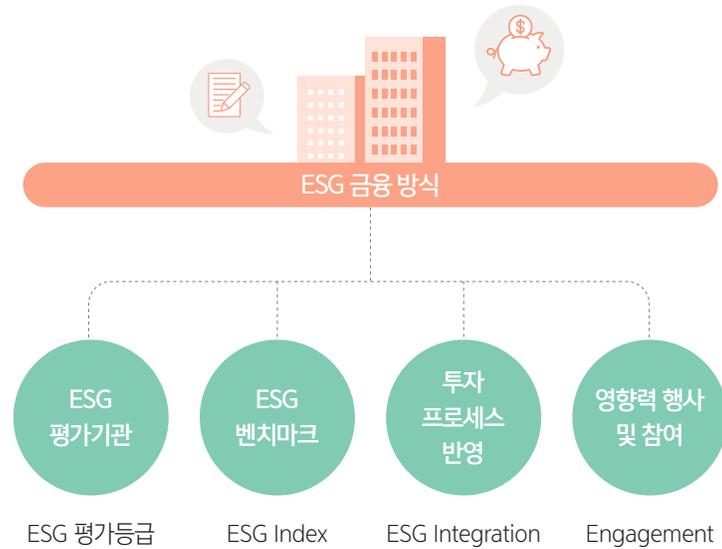
2021년 녹색금융 업무계획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녹색금융업무계획은 많은 부분이 ESG, 특히 E에 집중되어 수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SG 금융 방식

ESG 금융이 실제로 가시화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ESG 평가기관들의 평가결과가 금융에 반영되거나,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을 하나의 지수에 편입시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존의 투자 프로세스에 ESG 분석과정을 추가하여 투자 결정과정에 ESG요인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방식, 그리고 경영진과의 대화나 주주제안 등을 통해 ESG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방식도 들 수 있다.



지속가능 투자전략

‘투자 프로세스 반영’에 해당하는 지속가능 투자전략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즉 ESG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종목·산업에 대한 투자는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 테마투자, 임팩트 방식은 중소·중견기업이 관심을 기울이면 좋다.

ESG 금융 사례

금융기관들은 최근 투자 의사결정에 ESG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사례로서 신한자산운용은 2020년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242개 업체를 대상으로 TCFD 주주서한을 발송하였다. 신한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이 질의서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ING Group

2025년까지 석탄 여신 제로화
2022년까지 저탄소 펀딩&여신
규모 2017년 대비 2배 확대

BNP Paribas Group

2017년 셰일가스 산업 투자 중단
저탄소 전환기업 투자
1억 유로 배정

Citigroup Inc

2025년까지 저탄소 자금조달
2,500억 달러 목표
2025년까지 CO₂ 45% 감축

DBS Group

2024년까지 청정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100억 달러, 녹색사업 및
자산에 100억 달러 추가재원 조달



출처: 에코앰파트너스

해외 금융기관들도 최근 ESG 금융 행위의 중심에 탄소금융을 두고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 활동들은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협의체) 등의 국제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ESG 금융 지원프로그램

국내 금융기관들은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탄소중립, 기후대응을 위하여 금융 및 비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ESG 선언·실천을 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저리자금 대출이다. 다만 대기업은 ESG의 모든 영역을 잘 해야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서플라이체인 상에서 대기업이 원하는 활동, 그리고 우리 기업이 해야만 하는 ESG 활동을 선택하여 활동하면 된다.

금융 지원

- ESG 선언기업 대상 저리대출 제공 (ESG 경영선언문 제출 시)
- ESG 실천기업 대상 저리대출 제공 (ESG의 특정활동 선택 후 계획 제출 시)
- ESG 우수 평가기업 대상 저리대출 제공 (ESG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등급 획득 시)
- ESG 우수기업·사업·채권 중점 투자



비금융 지원

- 중소기업 ESG 진단 지원(IBK기업은행 중기 ESG경영진단 프로그램)
- 중소기업 ESG 경영컨설팅 지원(환경, 에너지, 노무, 인사 등)
- 중소기업 ESG 경영 홍보 및 정보 제공(ESG 경영 가이드북, 교육)
-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발굴 지원



14

EU 공급망 실사 추진과 대응방안

- > 기업실사과정
- >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추진 배경
- >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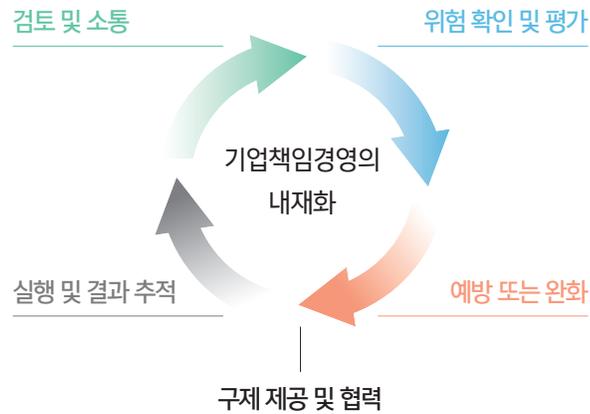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기업실사과정

기업실사(Due Diligence)란 기업운영 전반, 공급망 및 다른 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 의한 침해를 식별·예방·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을 의미한다. OECD가 발간한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기업실사지침'에서는 이 과정을 여섯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실사과정 및 지원수단



기업활동에 의한 잠재적 침해

| | | |
|--|--|--|
| <p>인 권</p> <p>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산업안전 관련</p> | <p>환 경</p> <p>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물다양성, 화학물질</p> | <p>윤 리</p> <p>뇌물수수, 청탁, 불공정거래</p> |
|--|--|--|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추진 배경

UN, OECD, ILO 등의 국제기구가 수립·공표한 국제원칙과 실사지침은 기업에 구속력을 갖지 않아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때문에 EU 회원국들은 기업실사를 의무화하고 강제하기 위한 국내법을 수립하였지만 국가별 기준이 매우 상이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EU는 통합적인 기준을 갖춘 기업실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2021, EU의회 '기업실사 및 기업책임에 관한 지침안'

| | |
|--|---|
| <p>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회원국의 법에 지배되는 대기업 EU 영토에 설립된 대기업 EU 소재 상장 중소기업 및 고위험 산업 중소기업 EU 시장 내 상품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국 기업 | <p>실사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사업장 사업관계사 (자회사, 공급업체, 하청업체 등 기업과 직접 연계된 업체) |
|--|---|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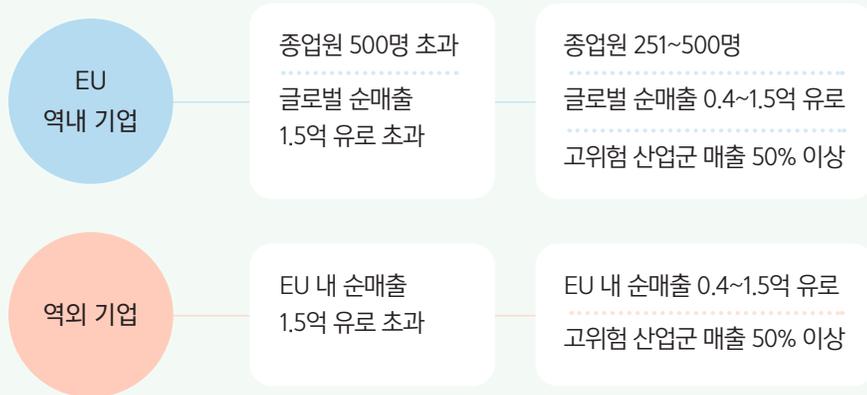
2022년 EU는 ESG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적용대상은 공급망에 연결된 EU 역내의 모든 사업장과 협력사이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안 발표

2022년 2월 23일, EU집행위원회는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안(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EU집행위원회의 지침안은 EU의회와 EU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발효되며, 각 EU회원국은 발효 후 2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적용해야 한다.



적용대상 및 조건



고위험산업군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섬유 및 가죽 생산, 섬유·의류·신발 도매, 두 번째는 농림수산업, 식품 제조, 기초 농산품·살아있는 동물·목재·식음료 도매이다. 세 번째로는 광물자원 채굴·채석, 금속·비금속 합금 제조, 기초·중간 광물 원자재 교역이 해당된다.

실사 범위



실사범위에서 밸류체인이란 사업관계의 강도 및 기간이 일정 수준 유지되며, 그 관계가 무시 가능하거나 부수적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침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침안 적용 대상 기업’과 지분 또는 계약의 형태로 연계되어있는 협력업체(공급업체)인 경우는 실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방안

EU의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는 경우, 적용 대상 기업들은 법안 대응을 위해 공급망에 대한 제재 및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 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실사 범위를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적용대상 여부 확인 및 실사범위 파악

법안의 적용 대상 기업이라면 실사범위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첫째로 산업 리스크를 파악한다. 산업별로 ESG 리스크가 다르므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연관된 ESG 리스크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자사 사업장이나 공급업체가 속한 지역의 ESG 리스크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인권 취약국가 또는 물 부족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물품을 공급받는다면 인권·환경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출액과 임직원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여 적용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등을 미리 파악한다.



2 자가점검

우리 기업의 인권·환경 경영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몇 가지 기업실사지침 및 협력업체 이행지침을 활용하면 좋다. 대표적으로는 OECD의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기업실사지침, UN의 기업과 인권이행지침이 있다.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UN글로벌컴팩트의 기업과 인권지침서 실사가이드라인도 참고하면 좋다.



3 관련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자가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이후 해당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이행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해야 한다. 이는 향후 ESG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을 경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 | 인권 | 환경 | 지배 구조 |
|--------------|-------------------|---------------------|---------------------|
| 정책 제도 | 인권 안전 관련 국제 기준 준수 | 환경 정책, 국가별 환경 규제 준수 | 반뇌물·반부패 정책, 책임자 선임 |
| 자료 수집 | 강제 노동 예방, 건강 및 안전 | 대기·수질 오염물질, 폐기물 배출 | 위반 사실, 제보 시스템 운영 결과 |

15

Taxonomy 개념과 동향

- > Taxonomy
- > Green Taxonomy
- > Social Taxonomy
- > K-Tax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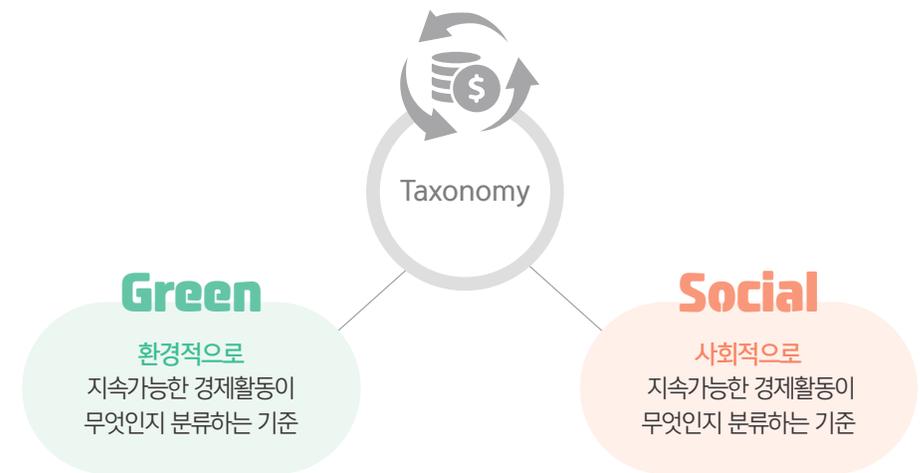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임성택 임성택법무법인(유)지평 대표변호사, ESG센터장

Taxonomy

EU에서 대표적으로 발전해온 텍소노미(Taxonomy)는 '분류'와 '법과학'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분류체계라고 번역된다. 크게는 ESG에서 E에 해당하는 그린텍소노미와 S와 관계된 소셜텍소노미가 있다.



EU 텍소노미 진행경과

2018년 발표된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중 하나가 텍소노미다. 텍소노미는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가 만든 기후채권텍소노미, 국제표준기구(ISO) 녹색용자텍소노미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한국의 K-텍소노미로 이어지고 있다.

텍소노미의 용도

텍소노미는 금융기관, 투자자, 정책입안자 등에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텍소노미는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며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라는 점이다.

Green Taxonomy

EU 그린텍소노미는 6대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물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이 그것이다.

EU 그린 텍소노미의 4가지 판단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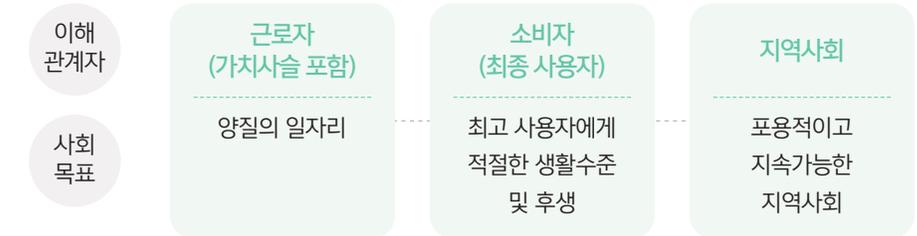
EU 그린 텍소노미를 적용하기 위해 '4가지 판단조건'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한다. 즉 6대 환경목표와 4가지 판단조건에 따라서 어느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 | | | |
|--------------------|----|---------------------------------------|----|---|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의 사례 | 01 | 농림수산업 > 복원, 기존 삼림관리, 가축생산, 다년생 작물재배 등 | 02 | 건물 >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기존 건물 수리 |
| | 03 | 제조업 > 저탄소기술 제품, 원료 플라스틱, 비료와 질소화합물 등 | 04 | 상하수도·폐기물 > CO ₂ 직접포집, 폐기물 분리수거 |
| | 05 | 수송·창고업 > 저탄소 교통인프라, 수상시설 건축 등 | 06 | 정보통신 >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 기반 솔루션 등 |

Social Taxonomy

EU 소셜텍소노미는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에 따라 3대 사회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린텍소노미와 유사하게 사회목표의 설정, 사회목표에 실질적인 기여,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최소한의 안전장치 등 4가지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소셜텍소노미의 3대 사회목표



세부목표 구성의 예시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목표는 다시 양질의 일자리 촉진,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근절, 경영진과 근로자의 임금격차 감소 등의 세부목표로 구성할 수 있다.
- 소비자 대상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 보장,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책임 있는 마케팅 관행 등이 세부목표가 될 수 있다.
- 지역사회 관련한 세부목표로는 경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개선, 장애인 포용, 지역사회 고용 유지 및 지역공급업체 지원 등을 설정할 수 있다.

K-Taxonomy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자본의 흐름을 그린뉴딜이나 녹색산업으로 투입하는 차원에서 녹색분류체계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



환경책임투자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녹색분류체계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한다.

표준평가체계

환경부장관은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텍소노미는 기업활동의 기준

그린텍소노미는 과학에 기반한 것이고 소셜텍소노미는 규범에 기반한 것이며 둘 다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은 비즈니스가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텍소노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16

ESG 경영과 공급망 내 인권 실사

- > 공급망 내의 인권 이슈
- > 인권실사의 구성
- > 국내 동향
- > 위법성 판단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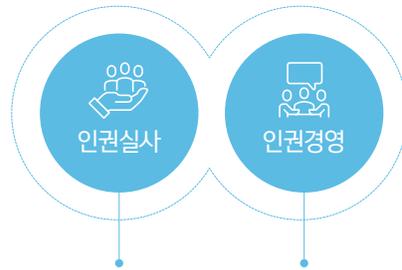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공급망 내의 인권 이슈

공급망 내에서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인권 실태에 관한 내용이며 최근 유럽은 인권실사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법적인 변화, 문화적 특징의 차이가 있으므로 공급망 관리 및 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기업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방지·
완화하는 포괄적 절차

인권경영 체계 구축,
실사계획 수립 및 시행,
문제 수정 등의 과정

EU의 법제화

EU는 자회사, 협력업체 등 협력관계의 기업이나 EU에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해외 회사들에게도 적용하는 ESG Due Diligence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화를 통해 ESG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벌금 및 재제를 가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독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

특히 독일은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국내 대기업 및 공급망에 속한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전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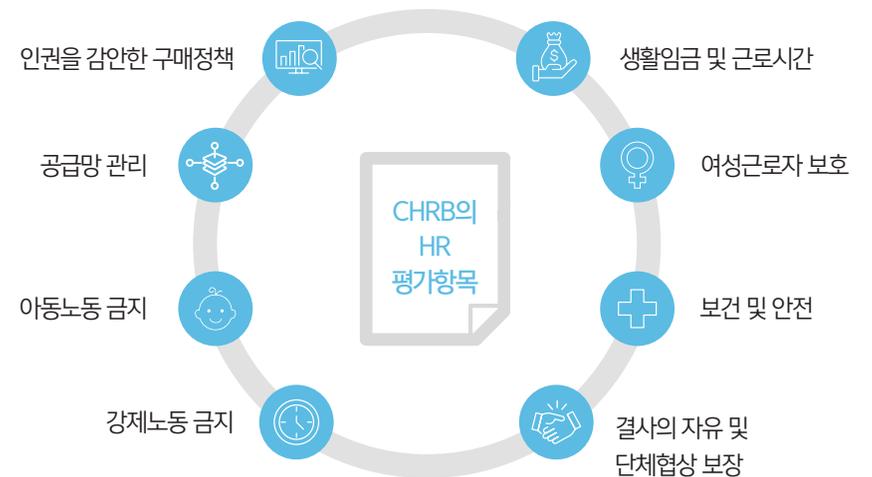
인권실사의 구성

인권실사에서는 ESG 시스템 구축, 평가항목 이해(체크리스트), 정보공개 과정 등에서 인권실사 관련 개별항목들을 모두 포함하는지를 검토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고용상 차별금지, 공급망 내 인권 장려, 다양성 및 포용성 등의 개별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모범사례 분석(Benchmarking)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동종업계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 좋다. 비영리기구인 CHRBR의 평가자료나 ESG평가기관인 MSCI의 툴을 활용하거나 특정 ESG 이슈 분야 수상기업의 ESG보고서 등을 분석하면 도움이 된다.

CHRBR의 노동관행 관련 주요 평가항목



국내 동향

유럽의 A기업은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한국의 자회사에서 용역을 준 업체가 운영하는 물류창고에 직접 방문하여 인권 실사를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ESG에 대한 강도 높은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내용을 법제화, 제도화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실사 제도화 추진

2019년 법무부는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에는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였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 등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한국지배구조원의 ESG 모범규준

국내 평가기관인 한국지배구조원 또한 평가항목에서 인권 및 노동관행과 관련한 지표를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및 협력업체 근로자, 기간제, 사내 하도급 근로자 등 공급망 전반의 인권 보장도 강조된다.

인권 및 노동관행 관련 지표 관리



인 권

- 최고 경영진 의지의 공개적 표명
- 공급망 전체에 대한 인권 위험 식별·분석
- 접근 가능한 고충처리 채널 운영



노동관행

- 근로환경
- 인적 자본 관리
- 기본권 보장
- 안전 및 보건

위법성 판단의 기준

인권 실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여전히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공급망 인권실사가 의무화될 경우 공급업체,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관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인사 관여 시 불법파견 리스크

판례에 의하면 수급업체 인사에 대한 원청의 개입, 관여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과중할 경우 수급업체의 실체가 부정되어 원청과 수급업체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이 인정되기도 한다.

경영 간섭의 의미와 위법성 판단 기준

협력업체, 공급업체에 대한 경영간섭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자칫 처벌, 시정지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실사 요구가 합리성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 판단 기준

- 0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 02 거래 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가?
- 03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가?

17

중소·중견기업의 ESG 사례 및 공급망 실사 시사점

- > ESG 평가와 공급망 관리
- > ESG 평가 사례
- > 공급망 실사 시사점



강의 바로보기

박태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파트너

ESG 평가와 공급망 관리

협력사와의 거래·사업과정에서 일어나는 ESG 이슈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 대한 이해관계자 영향력 행사를 넘어 재무적 영향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내의 ESG 관리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다.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5단계 시스템 구축



공급망 ESG 관리체계



공급망 ESG 관리시스템은 단순히 기업 자체 생산 및 영업활동의 ESG 이슈 관리 역할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밸류체인 내 협력사의 환경·사회 영향을 관리하는 더 적극적인 ESG 경영활동을 통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ESG 목표 및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자사의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간접탄소배출 저감, 물류협력사와의 협력, 탄소 경영전략 및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활용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SG 평가 사례

글로벌 협력사 평가 전문기관인 EcoVadis는 온라인 평가에 강점이 있고 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국내 대표적인 평가기관인 KCGS는 약 8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력사 ESG 평가의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보자.

협력사 ESG 평가사례 - 애플

- | | |
|---------------------|--|
| ESG 관련 달성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공급망 내 탄소중립 전 제품 100% 재활용 원료 사용 |
| 평가대상 협력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액의 93% 규모인 53개국의 모든 협력사 평가 |
| 평가 항목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과 인권, 안전과 보건, 환경 등 3개 영역 500여 항목 |
| 평가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급 부여 및 100점 척도 항목별 불순응/위반/중대위반 등 3단계별 차감법 적용 |

협력사 ESG 평가사례 - 국내 S사

- | | |
|---------------------|---|
| ESG 관련 달성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까지 전 협력사에 대한 서면평가 진행 |
| 평가대상 협력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 리스크 존재 협력사 대상 파일럿 평가 |
| 평가 항목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영역 161개 항목 |
| 평가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사 실사 점검에 따라 개선방안 수립 및 모니터링 |



공급망 실사 시사점

이제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즉 ESG 경영을 하나의 경영 방법론, 리스크 관리, 건전한 파트너십 구축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ESG 관련 이니셔티브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지금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래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경영방법론

- 체계 구축 및 프로세스 개선



파트너십

- 글로벌 공급망 체계 일원
-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현

리스크 관리

- 컴플라이언스 규제 강화
- 리스크 관리 이상의 의무 책임

1. ESG 진단 및 개선활동

협력사 ESG 평가항목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그리고 개선 가능성을 담당부서와 논의한 후 실제 개선활동을 실행해야 한다.

2. ESG 평가 대응력 향상

평가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ESG 현황 분석, 개선사항 도출 및 전략적 공시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ESG 전략체계 구축이 검토되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외부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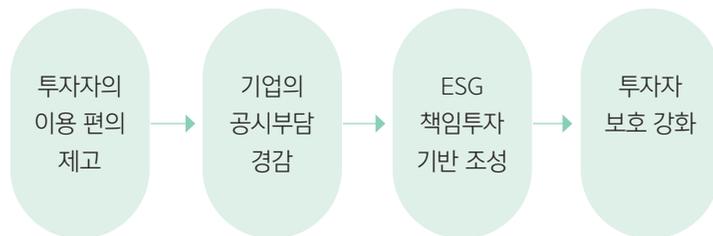
3. 운영조직 및 성과 관리

무엇보다 이사회나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나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담조직 또는 기존 조직 내에서 담당자를 명확하게 지정해야 하며, ESG 담당과 실무팀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4. 공시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금융위원회는 2021년 기업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공시 확대를 기반으로 한 ESG 책임투자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므로 기업들도 법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여야 한다.

ESG 공시의무화 추진방향



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포인트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트렌드
- > GRI와 SASB
- > 보고서 작성 기준 및 프로세스
- > 보고서 준비 시 고려사항



강의 바로보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트렌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공개하는 보고서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보고 원칙에 기반하여 작성한다. 보고서의 형태는 인쇄물, 홈페이지, 웹보고서 등이 있으며 회사 일반 공시물과의 차이점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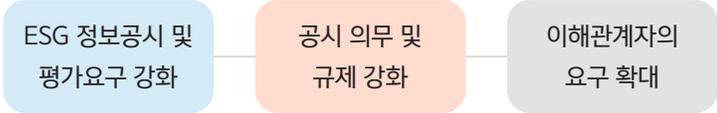
일반공시물(사업보고서, 회사소개서 등)과의 차이점

- ☑ GRI Standards, ISO 26000, SASB 등 글로벌 표준 기반
- ☑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하여 조직의 핵심이슈 발굴
- ☑ 중대성 평가를 통해 핵심이슈 우선순위 파악
- ☑ 제3자 외부 검증을 통해 신뢰성 확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필요성

기업의 신용평가 및 등급평가에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반영되며, 공시 의무화 및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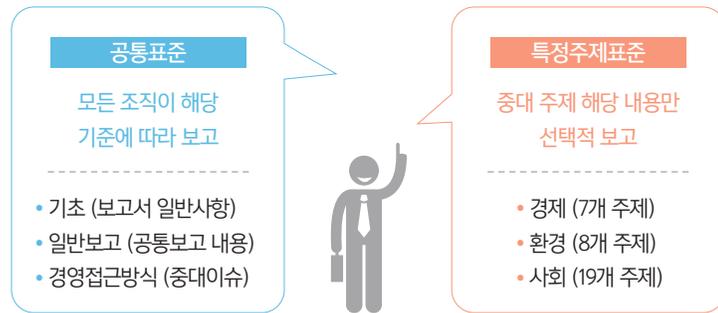
GRI와 SASB

2021년 기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은 모두 206개로 집계된다. KSA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보고서의 88%는 GRI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TCFD, SASB 표준의 활용도도 급증 추세이다.

| | GRI Standards | SASB Standards |
|--|--|--|
| | 개발자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1997년 설립 | 개발자 SASB(지속가능회계기준 위원회), 2012년 설립 |
| | 목적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이드선스 | 목적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
| | 구성 모든 기업이 산업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사용 | 구성 77개의 산업별, 업종별 표준 제시 |
| | 중대이슈 적법절차를 통해 이슈 도출 (Due process) | 중대이슈 전문가, 여론 등 대리자를 통한 이슈 도출 (Material by proxy) |
| | 관점 외부지향 (기업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관점 내부지향 (경제, 사회,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보고서 작성 기준 및 프로세스

GRI에는 공통적으로 보고해야 할 3개의 공통표준과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34개의 특정주제표준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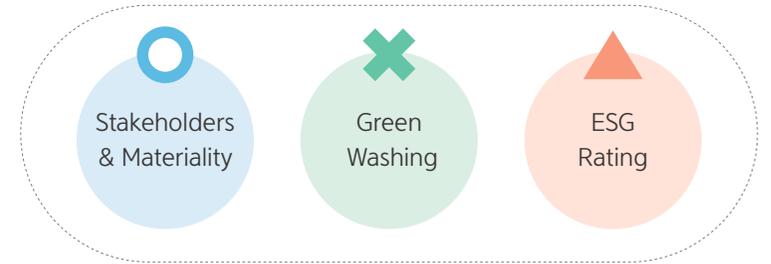
GRI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의 주요 포인트는 명확한 사용 목적 결정, 핵심 이해관계자 파악 및 소통방법 고려, 주요 이슈 파악 및 우선순위화, 모니터링 할 내용 구축 및 시스템화, 외부검증을 통한 신뢰도 향상이다.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보고서 준비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면 반드시 참고하고 주의해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모든 이해관계자, 중요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경영활동 및 공시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며 우리 회사의 중요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경영활동과 성과보고가 필요하다.

Green Washing, ESG Washing은 금물

미사여구보다는 주제별 정확한 내용과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좋다. 또한 엄격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검증기관을 선택하여 보고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정 평가기준에 집착하지 않는 보고서

특정 평가기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다만 GRI 10대 보고원칙, AA1000의 4대 검증원칙을 확인하고 환경·사회, 이해관계자·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9

ESG 공시 주요 Framework

- > ESG 평가의 이해
- > 글로벌 ESG 정보 표준화
- > ESG 주요 이니셔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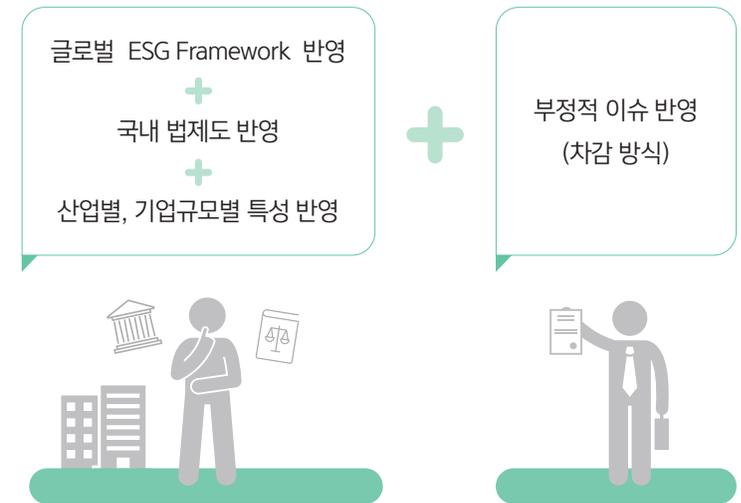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이선경 한국ESG연구소(구 대신경제연구소) ESG센터장

ESG 평가의 이해

ESG 평가의 핵심지표는 GRI, TCFD, CDP, CDSB, IIRC, UN SDGs, OECD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평가사의 주요 이니셔티브가 준용된다. 그리고 선정된 매트릭스 가운데에서 국내 법제도, 산업·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ESG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를 결정하고 이를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이 때 부정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점수에게 차감되는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ESG 지표 선정



부정적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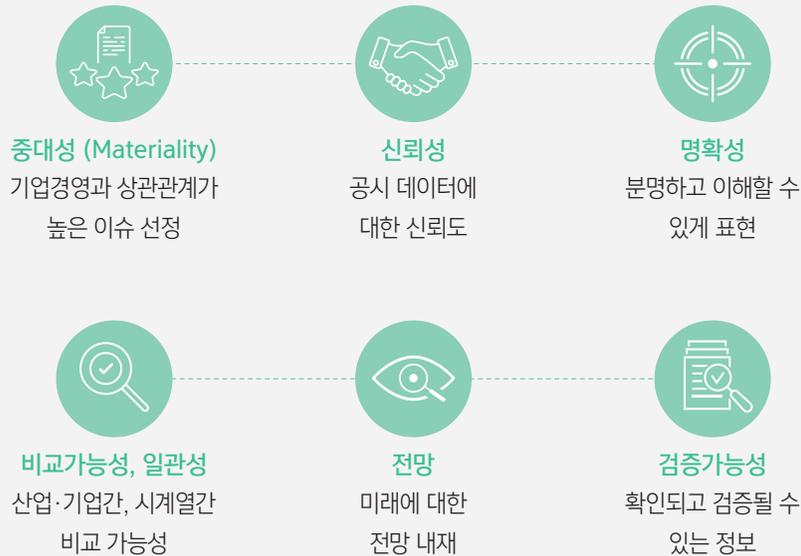
ESG 평가에 반영되는 부정적 이슈는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의 사고, 배임·횡령, 산업재해, 회계위반, 제품·서비스 안전이슈, 공정경쟁 위반, 강제노동·아동노동, 하도급법 위반, 데이터보안 위반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사고들로 구성된다.

글로벌 ESG 정보 표준화

글로벌 기관들은 비재무정보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는 데 협의하였고, 나아가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회계 정보에 준하는 지표들을 발표하였다. 이후 가장 많이 준용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표준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SG 정보의 6가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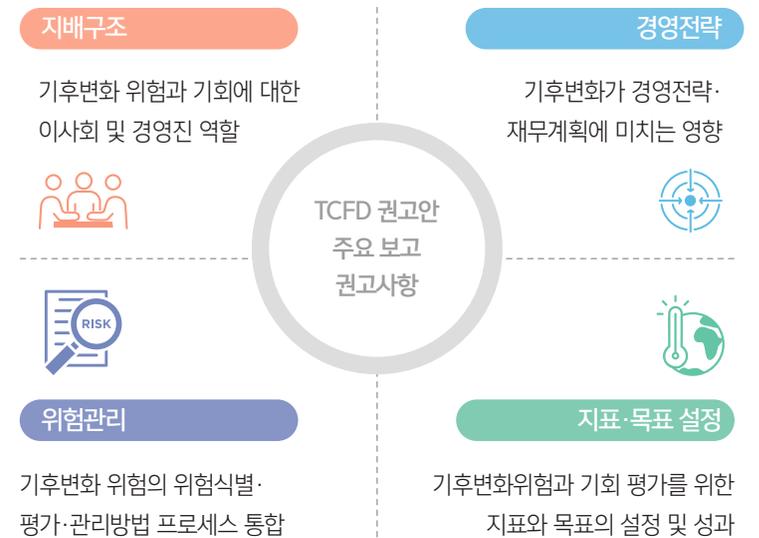
지속가능정보 이니셔티브의 정보 공시 원칙, 즉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정보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원칙으로 삼는 것들은 크게 6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ESG 주요 이니셔티브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 G7회담에서 TCFD 권고에 따라 기후보고 의무화 합의에 동의하는 등 기후변화 관련된 공시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TCFD 권고안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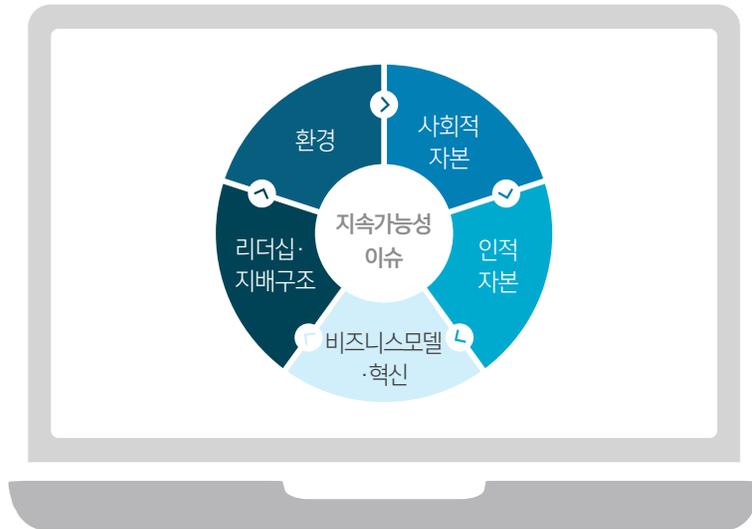


TCFD Cross-industry 측정지표와 재무영향

최근 TCFD는 Financial Impact에 대해서도 크게 2가지 측면의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의 재무성과 영향, 즉 수익성과 현금흐름의 변화 등에 대한 사항이다. 또 하나는 재무상태에 대한 영향, 즉 물리적·전환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의 장부가와 예상 포트폴리오 가치 등의 사항이다.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비재무공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를 설립하였다. 11대 산업군, 77개 세부 산업별 중대성 이슈를 규명하고 관련 정보공시 Metrics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20년 SASB와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가 합병해 Value reporting 재단이 설립되었다.



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1년에는 자연자본 재무공개 협의체(TNFD)가 출범하였다. 자연자본이란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공기, 물, 토양 등 모든 자연자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다. 2023년까지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체계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고 프레임워크가 개발된다.

20

ESG 10문 10답

- > ESG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 ESG의 필요성과 활용



강의 바로보기

 이재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SG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 ESG란?

ESG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 수익성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환경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나가는 경영활동이다. 기업활동에 있어 E, S, G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높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ESG 평가지표의 예는?

환경 (E)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 대기 및 수질오염
- 환경법규 준수
- 재생에너지 사용
- 폐기물 관리

사회 (S)

-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 노사관계
- 근로자 안전
- 차별 금지
-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지배구조 (G)

- 주주권리 보호
-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
- 감사제도
- 뇌물 및 부패방지
- 내부 고발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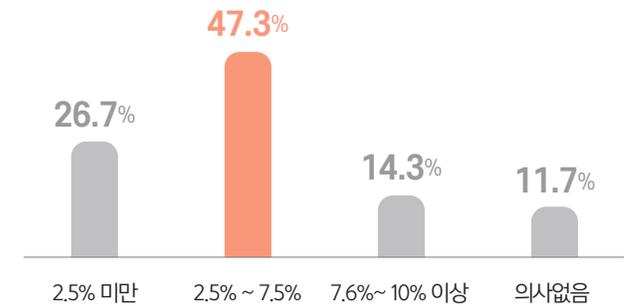
3. E, S, G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탄소 이슈, 온실화 이슈처럼 E가 우리에게는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환경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된다.

4. ESG는 정말 대세인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ESG 우수기업과 제품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ESG가 경쟁우위의 포인트임을 의미한다.

ESG 우수기업 제품에 대한 추가가격 지불의사는?



5. ESG를 대세로 만드는 요인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빈부격차 등은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기업은 ESG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인 받을 수 있다.

Procedural justice

- 절차적 공정성의 준수 여부

Social legitim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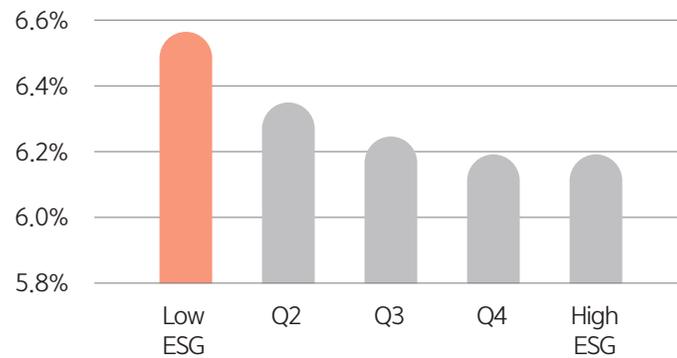
- 사회로부터의 정당성 확보 여부

ESG의 필요성과 활용

6. ESG 평가를 잘 받으면 좋은 점은?

MSCI 조사에 의하면 ESG 점수가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해 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부채비용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SG 점수를 기준으로 5개 분위(Quintile) 구분 (2015. 12. 31 ~ 2019. 11. 29)



8. ESG 경영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먼저 ESG가 우리 기업에 기회인지 위협인지, 단순한 투자인지 비용인지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ESG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ESG의
전략적 활용



- 핵심역량과 연계
- 핵심성과 지표 설정
- 객관적인 측정
- 이해관계자와 공유
- 개선방안 도출

7. Big Profit과 Good Profit, 투자자의 선호도는?

이익을 못 내는 회사는 투자자들이 외면하므로 전제조건은 Big Profit이다. 하지만 Profit 창출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 지속가능한 기업만이 투자자, 소비자, 구직자, 협력업체가 선호하게 된다.

9. 중소기업, ESG의 필요성은?

2020년 매킨지의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 CEO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급망 내 ESG 이슈 관리 강화'로 조사되었다. 이제 기존 협력업체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협력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ESG 평가가 중요해졌다.

10. ESG의 미래는?

플라스틱,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이슈와 함께 앞으로 ESG 평가지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ESG 관련 자료 또한 급증할 것이다. 하지만 ESG는 제약조건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지표로 생각해야 한다.

향후 ESG 전망



ESG 성과의
활용 증대



ESG 평가지표의
고도화



기업지속가능성과의
연계성 강화

PART 3

주요 업종별 ESG 우수 기업의 경영전략 및 사례



- > 철강/에너지/화학/반도체편 130
- > 식품제조편 160
- > 금융편 170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기업들은 물론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도 이미 ESG 경영 체계를 갖추고 활발하게 이행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들 또한 국내외 ESG 우수 기업들의 경영전략 및 추진 사례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관련 글로벌 정책 동향과 트렌드에 귀 기울여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21

기업시민 포스코 ESG 경영

- > ESG 관련 프레임워크
- > 전략 & 성과 관리
- >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강의 바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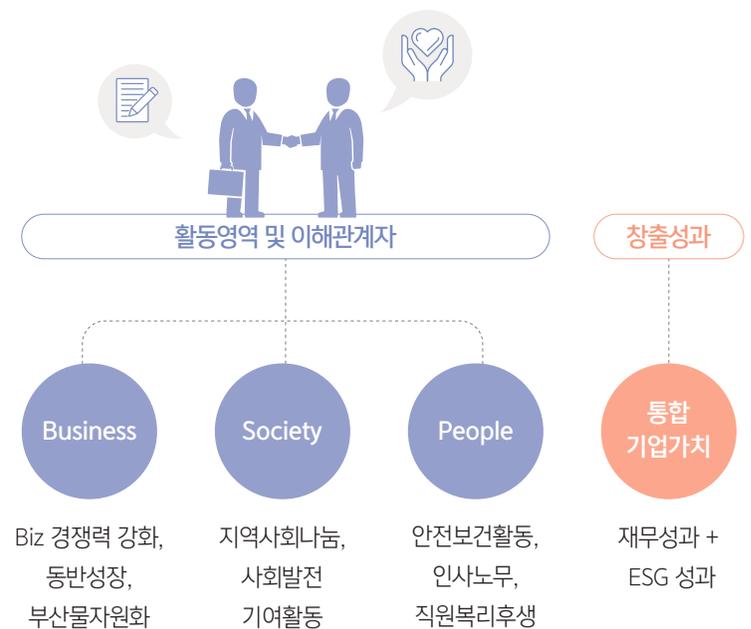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ESG팀

ESG 관련 프레임워크

2018년 포스코가 '기업시민'이라는 새로운 경영이념을 선포한 배경은 2가지다. 하나는 빈곤, 불평등, 계층갈등 등 복잡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제철보국'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철강, 무역, 건설, 화학, 에너지 등 다양화된 사업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업시민 경영이념 체계

기업시민은 경제주체 역할에 더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는 기업시민헌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전략 & 성과관리

포스코는 고유의 ESG 경영개념을 구체화하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속성장하기 위한 중점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임원과 일반직원들이 ESG실천과제(기업시민실천과제)를 수행하며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포스코 ESG 경영개념

- 친환경 소재 리더십 주도 (E)**
탄소중립활동, 친환경소재 개발·판매 확대, 부산물 자원화, 생물다양성 보존
-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 (S)**
안전/보건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Great Work Place 구현
- 공정/투명/윤리경영 (G)**
선진 지배구조 운영, 책임/정도경영/공정거래, 다양성/포용 기반 마련



ESG 성과 창출을 위한 실천 및 관리

임원은 연 1건 이상 수행한 성과에 대해 KPI에 20%를 반영하고, 직원은 개인별 실천활동을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부서 내 실천방법을 토론하는 '부서별 기업 시민토론회'도 운영하고 있다.

실천사례 1. 폐각 재활용

폐폐각은 연 35만톤에 이른다. 포스코는 주성분이 석회석인 폐각을 가공하여 제선 소결공장, 제강탈류 및 판매를 통해 재활용하는 데 성공하였다.



창출성과

- 환경문제 해결
폐자원 선순환체제 구축
- 탄소중립 실천
연간 15만톤의 CO₂ 감축
-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고충 해소



협업체제 구축

- 포스코
폐각을 석회로 만드는 기술 개발
- 정부·지자체
폐기물관리법 개정
- 공급사
폐각 재활용 환경성 평가 참여

실천사례 2. Smart Safety Ball 개발

폐수처리장 등에서의 질식사고 재해 발생은 연 316명, 사망자는 168명에 이른다. 문제 해결을 위해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유해물질을 감지하고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공 모양의 가스 감지기를 개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포스코는 2004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왔고 2018년부터는 기업시민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20년에는 글로벌 정보공개 표준에 맞게 ESG 성과를 정리한 ESG factbook도 별도로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

임직원 공모로 비전 슬로건 선정
(Green Tomorrow with POSCO)



ESG 실천 문화 조성

기업시민헌장 실천 독려 (공식회의 시 현장 낭독,
사옥로비에 관련 미디어아트 설치, PC 화면보호기 노출)



ESG 성과 공유

매년 '기업시민 컬처데이' 개최
(관련 특강, 대담, 우수사례 발표)



관련 도서 발간

기업시민의 이론적 배경, 실천사례 정리

22

현대제철 ESG 경영 로드맵과 핵심과제

- > ESG 경영의 필요성
- > 현대제철의 ESG 경영전략
- > 환경 이슈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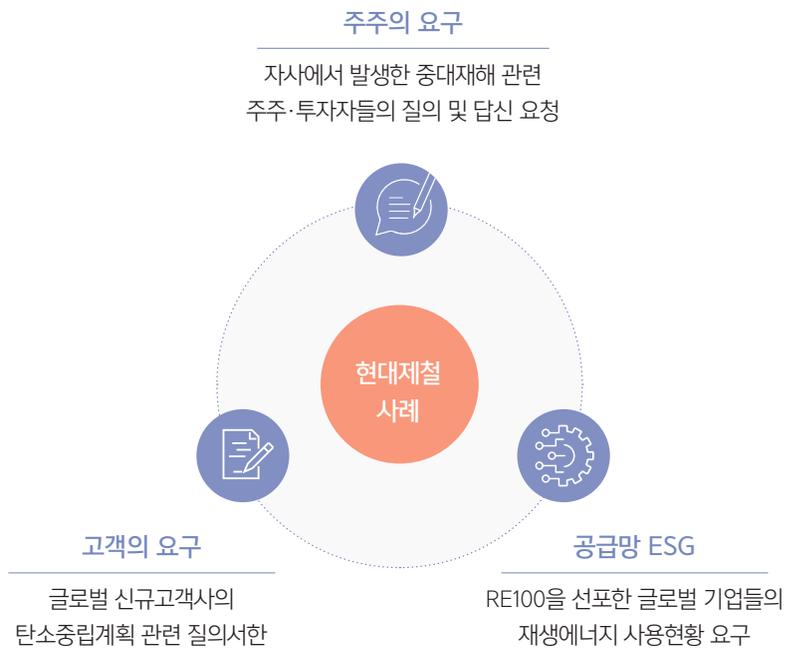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김형창 현대제철 지속가능경영팀 책임매니저

ESG 경영의 필요성

고객의 인식 수준이 확산되고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ESG 경영에 대한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크게 늘었다. 현대제철의 경우 2021년 외부의 ESG 평가 및 요청 사례가 전년 대비 약 30% 정도 늘어났다.



ESG 평가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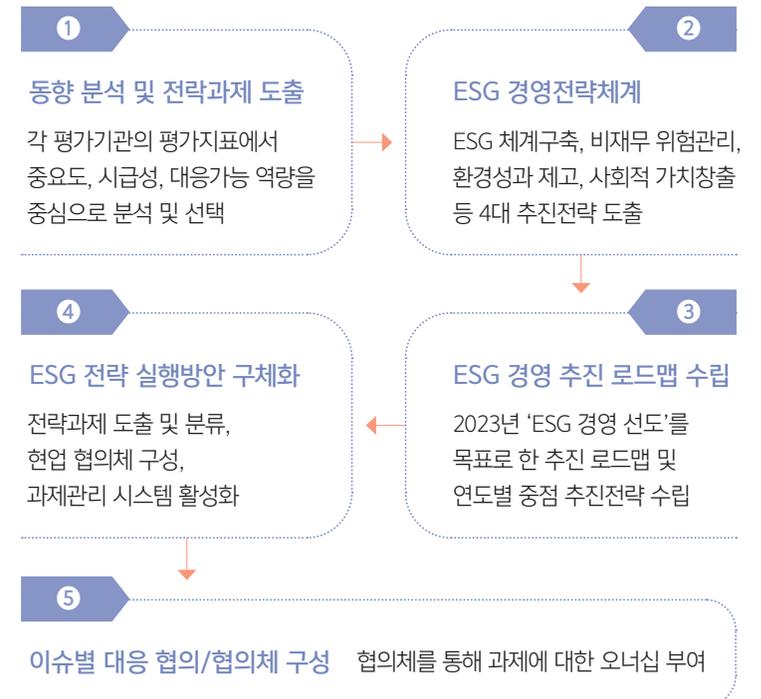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ESG 테마지수에 반영되며 투자유치를 통한 재무건전성에 기여하게 된다. 당사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평가기관의 ESG 평가결과를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현대제철의 ESG 경영전략

현대제철의 ESG 경영전략은 크게 ESG 전략과제, ESG 데이터 시스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ESG 전략과제

내부 현안을 조사하여 220여 개의 전략과제 및 60여 개의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실행방안을 수립하였다. ESG 경영전략 수립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5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ESG 데이터 시스템

ESG 경영은 방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스템이므로 효율적인 데이터 시스템 구축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크게 보면 정보나 성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 활동 추진에 대한 신뢰성 확보 그리고 업무편의성 및 효율성의 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웹기반 통합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누구든지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부분을 취사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반의 통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접근이 편리하고 데이터 수정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인쇄본 제작 시 소요되었던 종이, 잉크, 배송 등이 제외됨으로써 탄소발생량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환경 이슈 대응

ESG 경영의 가장 큰 화두인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제철은 저탄소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내용은 CO₂ 배출 저감기술, 에너지효율화, 수소 생산 및 활용, 환경 관련 설비 효율화 등이 있다. 또한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자원순환형 사업이므로 친환경 재자원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탄소 제품 생산 신체계 Hy Cube Project 추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고로를 대체하는 신전기로 중심의 탄소중립 체제 전환 및 저탄소 제품개발을 추진 중이다.

커피박 재활용 프로젝트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박을 수거하여 건조시킨 후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하는 자립형 사회공헌사업을 추진 중이다. 화분, 연필 등의 친환경 제품을 비롯하여 축사의 악취 제거 등 신규 사용처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

부산물의 재자원화 추진

현대제철은 지역의 환경오염 원인이었던 패각,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등의 부산물을 제철공정에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 중이다.

23

한화솔루션 ESG 경영과 전략

> ESG 경영의 기회

> ESG 경영의 노력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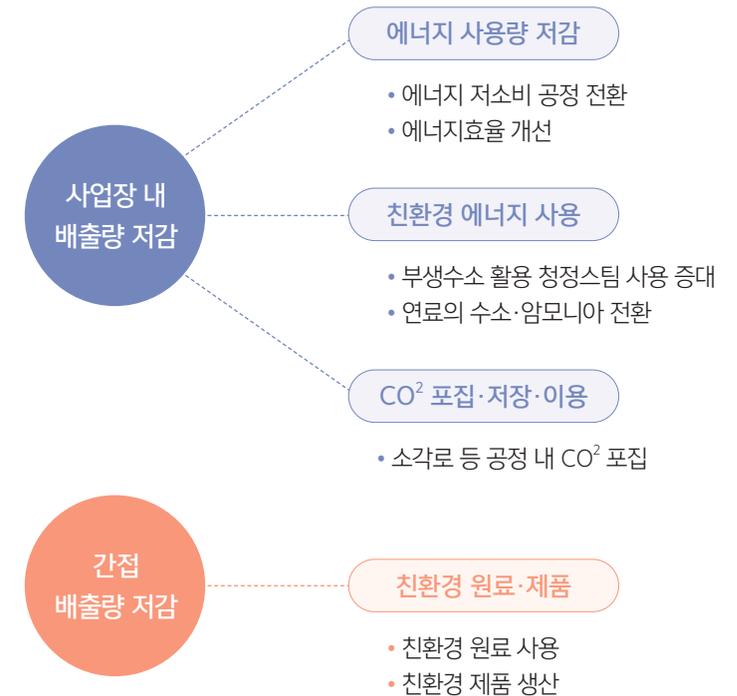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ESG 경영의 기회

한화솔루션은 ESG 경영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고, 크게 4가지 부문의 사업을 주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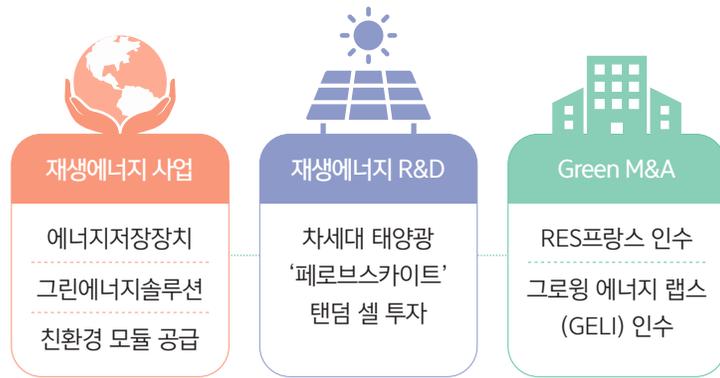
2050 Net Zero 달성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89만 톤이었던 한화솔루션은 2050 Net Zero 달성을 위해 단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감축목표 달성방안으로는 크게 사업장 내 배출량 저감, 간접 배출량 저감을 들 수 있다.



Green Energy

차세대 태양광 모듈 기술 개발, 풍력발전사업 개발, 수소에너지사업 확대, 분산형 발전 기반 에너지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 및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Green Recycling

차세대 태양광 모듈 기술 개발, 풍력발전사업 개발, 수소에너지사업 확대, 분산형 발전 기반 에너지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 및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 |
|---------------------|--|
| PTC 기술 | 페플라스틱을 촉매와 열분해를 통해 열분해유를 만들고 다시 석유화학 제품으로 제품화하는 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 식물에서 추출한 당을 균주와 중합하여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
|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 |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통해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Green Hydrogen

수소에너지는 에너지전환에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수소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 주기사업 역량을 배양하여 수소 Value Chain을 구축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수소충전소 태양광 모듈 및 ESS 공급,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미국 수소탱크 기업인 시마론을 인수하여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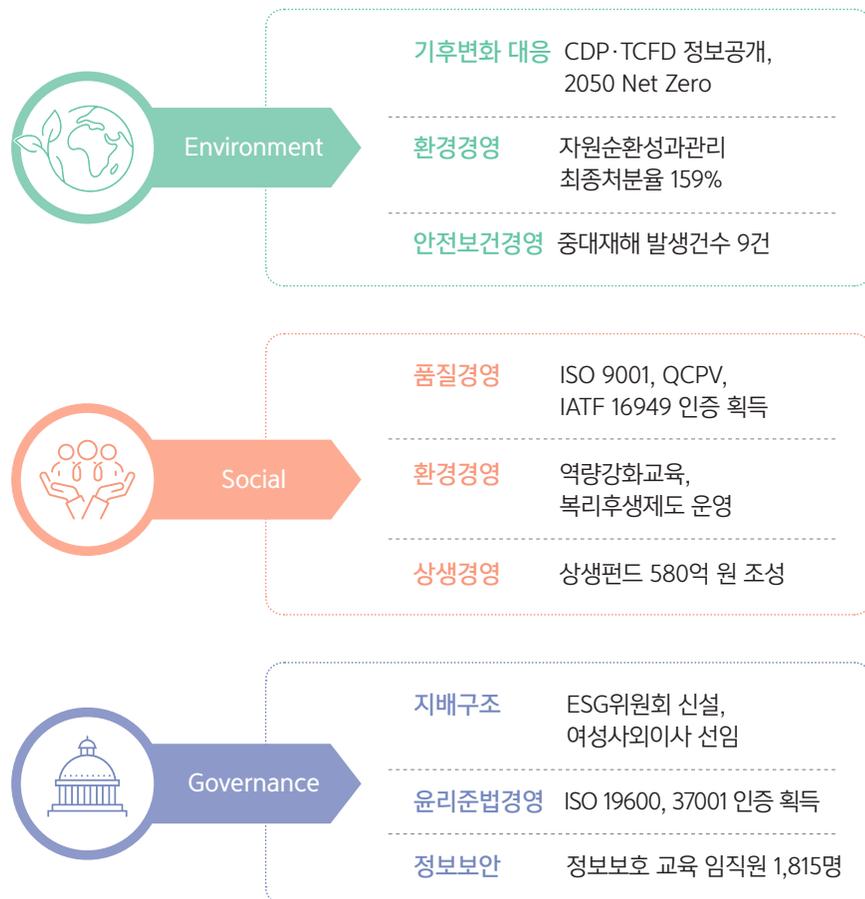
한화솔루션의 그린수소 비즈니스 모델 구축



ESG 경영의 노력 및 성과

2021년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실무조직인 ESG사무국과 유관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ESG 경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화솔루션의 그린수소 비즈니스 모델 구축



24

LG화학의 ESG 혁신을 통한 미래 성공전략

- > ESG 진단 및 주요활동 트렌드
- > LG화학의 핵심과제
- > Sustainability Goals



강의 바로보기

김종필 LG화학 지속가능전략팀장

ESG 진단 및 주요활동 트렌드

LG화학에서는 지속가능한 ESG의 추진을 위해 먼저 내부적인 진단을 실시하였다. 특히 E, S, G 각 분야별로 3가지씩의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다.

LG화학의 ESG 진단 질의 분야



산업별 지속가능경영 주요활동 트렌드

글로벌 우수기업들이 지속가능 전략 및 활동에 반영하고 있는 6가지 카테고리의 활동 트렌드들을 우선 분석해보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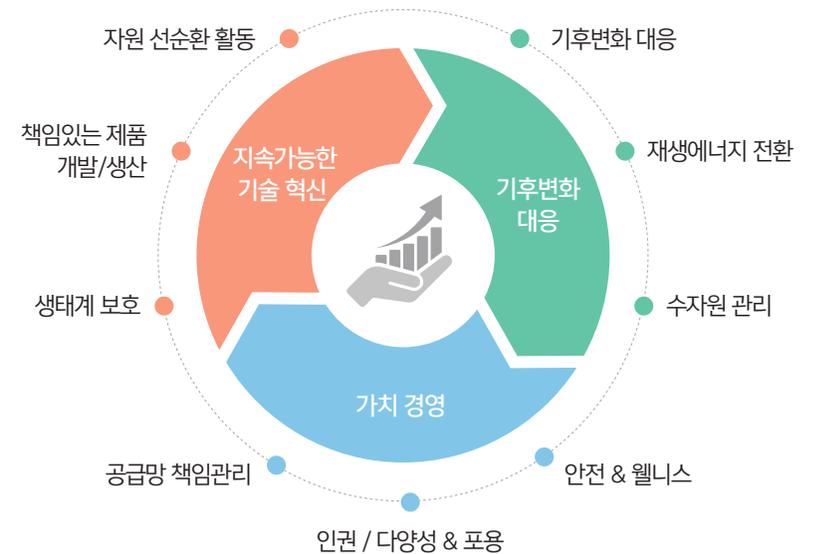
- ☑ Green Product & Design Innovation
- ☑ Supply Chain Responsibility
- ☑ Woman Empowerment
- ☑ Decarbonization
- ☑ Circular Economy
- ☑ Health & Safety

LG화학의 핵심과제

LG화학은 비전의 핵심가치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내재화하고 있다. 또한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로 해야 하며 이는 대내외적인 리더십과 투자 그리고 명확한 목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Innovative 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도출된 핵심과제는 9가지이며 각 과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나가고 있다. 특히 모든 핵심과제는 투자뿐 아니라 R&D, 제품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전 밸류체인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Sustainability Goals

9개의 핵심과제 가운데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시장 및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목표를 5가지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과 사회를 위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지속가능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탄소 저감 및 플라스틱 재활용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바이오 원료 투입을 늘리고, 폐 플라스틱 매립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줄이면서 탄소 배출량도 감축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전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를 완수할 예정이며, 환경 영향에 대한 투명함과 책임감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취약점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통해 Sustainability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급의 투명성 확보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뿐 아니라 LG화학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공급망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정기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를 위한 LCA 외부컨설팅 지원 등으로 협력사 ESG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화학제품 원료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민관산학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상용화하며 석유화학 사업의 탄소 저감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이원화 전략

2030년 해외 전 사업장, 2050년 국내외 전 사업장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ESG 기반 비즈니스 투자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Sustainability 비즈니스, 전지 소재, 글로벌 혁신 신약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10조원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25

국내기업 ESG 이행전략 수립방안

- > 이노마드 사례를 통한 전략적 ESG 내재화
- > 국내기업의 ESG 이행전략 수립방안
- > ESG 대응 프로세스



강의 바로보기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

이노마드 사례를 통한 전략적 ESG 내재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73%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한다.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그 수치가 86%에 이른다. 넷제로로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부문의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노마드는 수요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휴대용 수력발전기를 개발하였다.



휴대용 수력발전기

누구나 흐르는 물로 필요한 전력을 직접 생산, 저장 사용할 수 있다. 전기회로에는 납을 사용하지 않고 100% 재생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이는 캠핑 아웃도어 시장을 타겟으로 하여 기존 B2B 또는 B2G 중심의 에너지 시장을 B2C로 확장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전력수요

기후변화와 ESG는 거대한 담론이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의 참여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탈중앙화하여 개인화하고,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전력수요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기업의 ESG 대응전략 수립방안

ESG 중 환경부분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MRV(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Reduction, RE100, Offset의 4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좀더 구체적으로 8가지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SG - Environment 대응 전략

- 1 Kick-off • 전략 수립
- 2 Boundary • 범위 선정
- 3 Inventory • 분석, 진단
- 4 Reduction • Scope 1, 2, 3
- 5 Documentation • 자가진단, 제3자검증
- 6 Validation • SBTi, UN GHG Protocol
- 7 Offsets • 조림사업, CCUS, DAC(10%)
- 8 Finalize • 선언 및 공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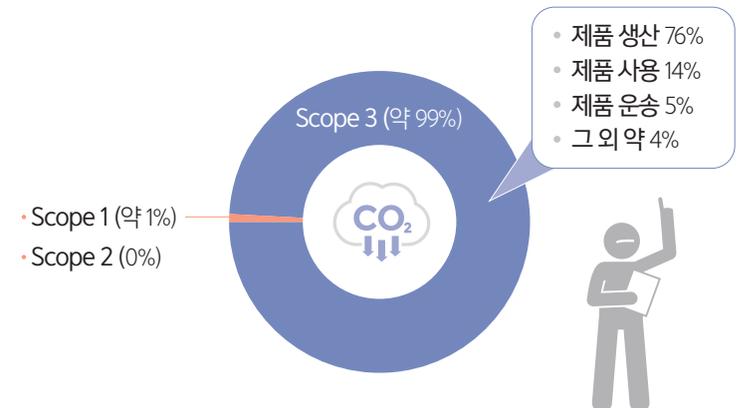
Scope 1, 2, 3 관리로 경쟁력 확보

Scope 1은 사업장, 밸류체인 내에서 직접 배출하는 것, Scope 2는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것, Scope 3은 그 이외의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ESG는 규제 대응을 넘어 제품·서비스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Scope 3 관리의 중요성

Scope 3에서는 소재 수급, 생산, 포장, 판매, 폐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부문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특히 공급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 사업장 내 직·간접 배출은 약 1%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협력 부품업체 생산과정, 판매 및 사용과정의 탄소배출까지 포함한다면 Scope 3 배출량은 나머지 99%에 이르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애플의 탄소배출원



ESG 대응 프로세스

ESG 대응전략이 수립되었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응프로세스는 6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ESG - Environment 대응 프로세스



26

SK하이닉스의 ESG 추진사례

- > 반도체 산업과 물
- > 물 리스크 대응 및 관리 전략
- > 데이터 관리 및 투명한 공시를 통한 신뢰 확보



강의 바로보기

반도체 산업과 물

물은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다. 반도체는 고도로 청정화된 환경, 즉 클린룸에서 생산이 진행되며 물은 그 안의 각종 장비 및 설비들을 위한 냉각수로도 사용된다. 또한 제조 공정 전후에는 불순물을 씻는 초순수로도 사용되고, 제조과정의 각종 가스를 정제해서 배출하는 스크러버에도 다량의 물이 사용된다.



워터 리스크에 대한 지표

2021년에 발생한 미국 텍사스 한파로 인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가뭄으로 인한 대만 TSMC 섯다운 공포도 물 부족의 영향을 받은 사태였다. SASB는 이런 물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기업의 취수원에 대한 정보, 물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세계자원연구소(WRI)에서 제시하는 톨을 사용하여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물 리스크, Water Stress를 공시하여야 한다.

SASB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으로 77개의 산업별, 업종별 표준을 제시한다. 현재 미국의 다수 기업들이 SASB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공시하고 있다.

물 리스크 대응 및 관리 전략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의 일부가 워터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이다. SK하이닉스의 사업장이 있는 이천, 중국의 우시 지역도 워터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각 사업장의 물 리스크 수준과 유형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사업장별 물 리스크 대응책 마련

대표적으로 워터스트레스 High지역을 살펴보면 이천사업장의 경우는 이원화된 용수 공급체계를 갖추고 물의 재이용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우시 사업장은 2020년 기준 취수량의 28%를 외부 재이용수로 공급하고 단지 내 우수 배수 관망을 개선하여 홍수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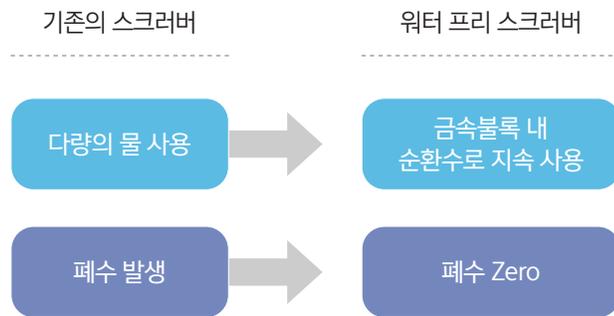
물 관리 전략 및 리스크 대응방안

또한 취수, 사용, 방류단계에서 물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특히 물의 재이용량을 늘리면 취수량을 줄이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폐수 재이용시스템의 용량 증대 및 용폐수 절감 활동들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워터 프리 스크러버 사례

SK하이닉스는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유해 가스들을 물을 분사해 냉각/정제하는 기존 스크러버 대신 냉각수가 파이프 안에서 이동하면서 열을 식히는 워터 프리 스크러버를 개발하여 물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다. 기존 스크러버에 비해 물 사용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고도화된 정수처리시스템 사례

SK하이닉스는 사용한 폐수들을 처리하는 고도화된 정수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다양한 공정을 거쳐 '좋은 물' 수준으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다. '좋은 물'은 좋은 생태계가 유지되며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하천 수질이다.

데이터 관리 및 투명한 공시를 통한 신뢰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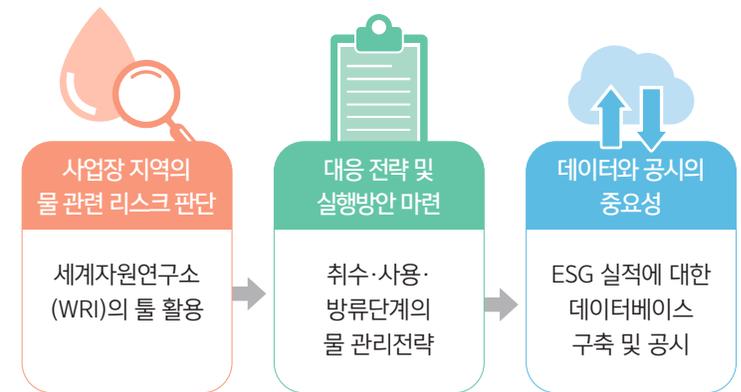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SK하이닉스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4,300만 톤의 물을 절감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약 40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된다.

대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투명한 공시

SK하이닉스는 ESG 실적 데이터를 추적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홈페이지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물 데이터 관리 및 공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물 리스크를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한 후 그 실적을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27

CJ제일제당의 지속가능경영 사례

- > 지속가능경영 지향점 및 추진전략
- > ESG 경영 로드맵
- > ESG 경영의 주요성과



강의 바로보기

장민아 CJ제일제당 ESG센터장

지속가능경영 지향점 및 추진전략

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이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공감이라는 철학 아래 자연에서 소비자 식탁으로,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Nature to Nature'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환경영향의 최소화, 사회적 리더십 확보, 초격차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략과제 및 Quick Win 과제

지속가능한 환경, 건강과 안전이라는 핵심가치와 연계하고 대외중요성, 비즈니스 영향을 토대로 모두 8가지의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규제 동향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계 구축, 인권경영 프로세스 확립이라는 2개의 Quick Win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중이다.



ESG 경영 로드맵

CJ제일제당은 ESG 리스크 저감단계를 넘어 제품·서비스의 ESG가치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과 글로벌 영토확장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중장기 로드맵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탈탄소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제품·솔루션 혁신을 통해 2050 'Carbon Neutral & Zero Waste' 기반의 비즈니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2030
(20년 대비)

- 사업장 온실가스 25% 감축
- 재생에너지 전력 100% 전환
(미주지역·아시아는 2050까지 전환)
- 용수 원단위 10~20% 감축
- 매립 폐기물 제로화
- 식품손실 및 폐기량 50% 감축

2050
(20년 대비)

- Carbon Neutral & Zero Waste



인권경영 추진 및 UN SDGs 이행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 및 자회사 인권실사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올해는 실사범위를 해외사업장까지 넓힐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미디어, 지역사회, 공급망, 학계 및 전문가에 이르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원칙 및 구체적 실천을 위한 주요 규범 및 정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적극 소통하고 있다.

거버넌스 구축

2021년 지속가능경영 관련 적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였다.

최고 의사결정기구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경영협의체

-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대표이사 주관)

전담 조직

- ESG 센터

실무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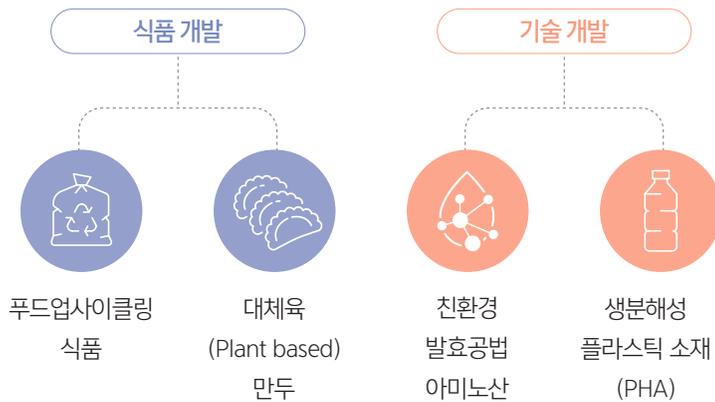
- 지속가능경영 실무협의체

ESG 경영의 주요 성과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통해 CJ영양설계 가이드라인을 통한 건강한 식품 개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제품 개발, 삼림파괴 중단 선언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제품 개발

폐기 부산물을 활용한 푸드업사이클링 식품, 대체육 만두 등을 개발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아미노산을 친환경 발효공법으로 생산하여 폐수·폐가스를 줄였으며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PHA를 개발하였다.



삼림파괴 중단 선언

브라질 농축대두단백 생산기업인 CJ Selecta는 무분별한 벌채, 화전경작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태계 파괴를 막는 삼림파괴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아마존 지역의 대두 소싱을 제로화하고 브라질 농가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8

풀무원의 가치체계와 ESG

- > 성공적인 ESG 경영의 3요소
- > ESG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



강의 바로보기

오경석 풀무원 바른마음경영실 상무

성공적인 ESG경영의 3요소

풀무원이 최고수준의 ESG 평가를 받은 원동력은 환경적 가치창출에 대한 경영이념과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개선활동의 실행을 들 수 있다.

성공적인 ESG 경영의 3가지 요소



풀무원의 가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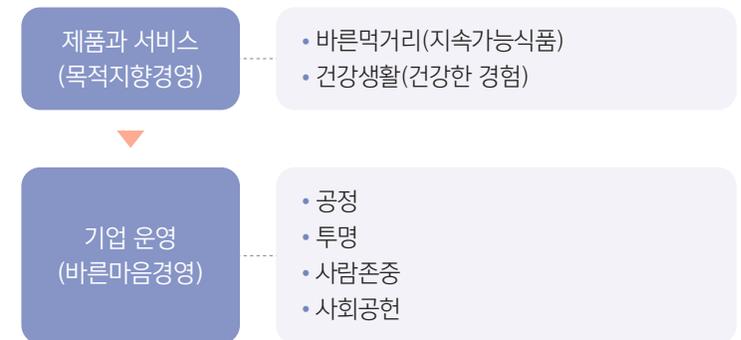
풀무원의 경영이념은 '이웃사랑, 생명존중'의 풀무원정신에서 비롯한 바른 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의 미션, 고객 가치 제 안인 핵심전략, 그리고 조직원의 일하는 방식인 핵심가치로 완성된다.

풀무원의 핵심가치



전략·운영체계 및 지속적 개선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미션에는 고객(사회)과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치 창출의 개념이 내재화되어 있다. 또한 풀무원의 ESG 가치창출은 사회책임 실천 방식인 목적지향경영과 바른마음경영을 통해 구체화되며 이는 모든 경영지원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



ESG 관리체계 및 글로벌 평가·인증 활용

ESG 관리는 ESG위원회, 최고경영자회의체, ESG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실행되고 있으며 이를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한 꾸준한 사회책임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평가, MSCI ESG 평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평가, B-Corp 인증을 통해 ESG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ESG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ESG가 추구하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풀무원이 ESG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를 지속가능식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핵심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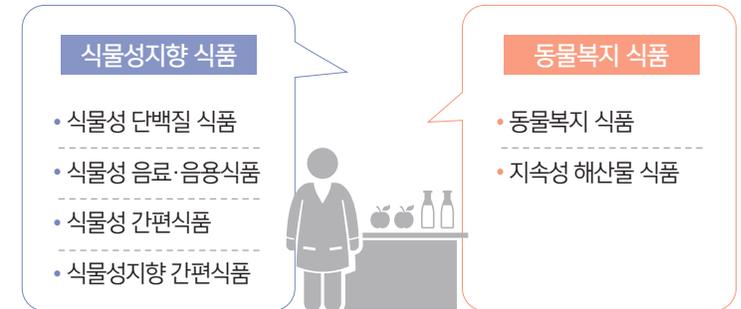
식물성지향 식품

핵심전략 중 식물성지향을 미래 핵심 전략으로 선정하고 기후변화 완화에 일조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풀무원은 이를 미래핵심사업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속가능식품

식물성지향 식품을 넘어 지속가능식품(바른먹거리) 운영체계를 확대하고 제품 라인업을 개편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물론 더 큰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동물복지 식품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동물복지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인식하고 공장식 축산, 공장식 수산양식과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물복지 제품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29

KB금융그룹의 ESG 경영과 전략

- > Environment
- > Social Responsibility
- > Corporate Governance



강의 바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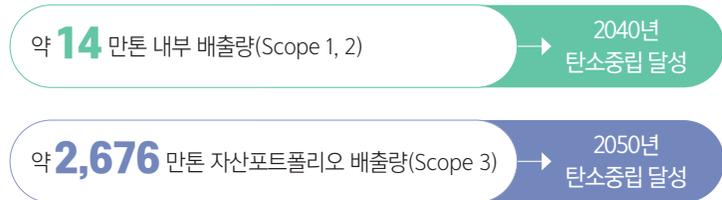
문혜숙 KB금융지주 ESG본부장

Environment

KB금융그룹의 ESG 전략목표는 '환경·사회 책임경영과 좋은 지배구조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및 고객 신뢰 제고'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달성과 ESG상품·투자·대출이라는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문의 전략을 살펴본다.

탄소중립 선언 - KB Net Zero S.T.A.R.

중장기 추진전략인 KB Net Zero S.T.A.R는 친환경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파리기후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환경을 복원하는 전략이다. 감축목표는 PCAF 방법론 기반으로 탄소배출량을 측정 한 후 SBTi 방법론에 따라 설정하였다.



재생에너지 전환 선언

2021년에는 RE100 가입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직접투자·지분인수, 전력 구매계약(제3자PPA), 인증서 구매 등의 방법으로 2040년까지 전 계열사의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예정이다.

친환경 건물 및 친환경 차량 전환

본점, IT센터 등 16개 건물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였으며 6개의 건물은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받았다. 또한 K-EV100에 가입하여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SG 기업문화 내재화

그룹, 계열사별로 KB GREEN WAVE 2030과 같은 다양한 ESG 캠페인을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문화를 확산해나가고 있다.



환경·사회투자원칙 선언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ESRM)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환경·인권 문제가 있는 개발사업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적도원칙에 가입하고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였다.

Social Responsibility

KB금융그룹은 미래세대 육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사회공헌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796실 신설



초등돌봄교실 및 병설유치원

167,000명 방문



2021년 KB 굿잡 취업박람회

동반성장 및 상생가치 실현

750억원의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포용적 금융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입사원 채용 시 ESG 동반성장 부문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채용을 확대하였다.

스타트업·소상공인 지원 및 다양성 확대

KB스타터스, KB 소호 컨설팅 등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조직 내 여성인재양성 특화프로그램인 WE STAR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KB 스타터스 • 156개사에 1,049억 원 투자 (2021년 기준)

2 KB 소호 컨설팅 • 무료컨설팅 5,955건 제공 (2021년 기준)

Corporate Governance

KB금융그룹은 CEO 경영승계시스템,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등에 있어서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의 Best Practice를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ESG 경영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또는 C-level의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및 이니셔티브 활동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TCFD보고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NZBA(Net-Zero Banking Alliance),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26 등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협의체에 참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SG Financing

ESG 투자와 관련하여 2030년까지 ESG 관련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50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 중 25조 원은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등 친환경 분야에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ESG 채권 발행 확대를 통해 ESG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SG 상품·투자·대출 목표

- 50조 원 (2030년까지)



ESG 채권발행

- 102,325억 원 (2021년 10월 누적)

30

신한금융그룹 ESG 프레임워크

- > ESG 전략 워크프레임
- > 친환경 전략 「Zero Carbon Drive」
- > ESG 거버넌스
- >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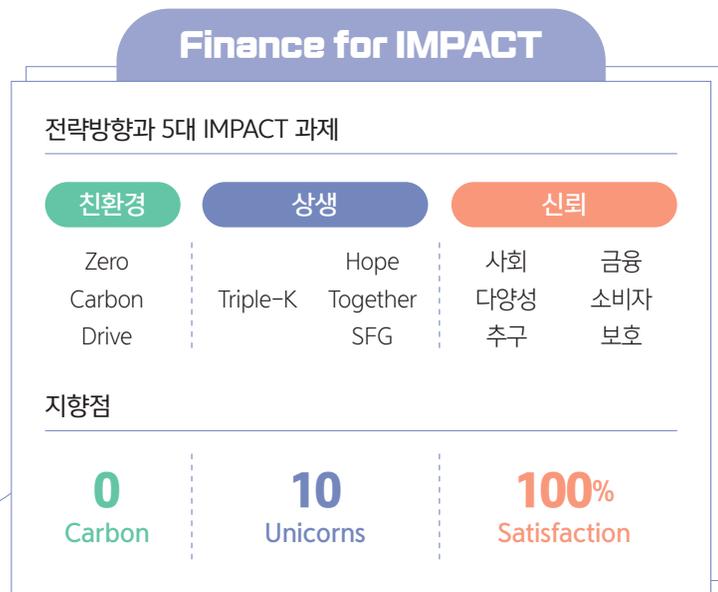
강의 바로보기



이상은 신한금융지주 ESG기획팀 부부장

ESG 전략 프레임워크

신한금융그룹은 'Finance for IMPACT'라는 ESG 원칙 아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친환경, 상생, 신뢰 등 크게 3가지 전략방향을 바탕으로 5대 IMPACT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E), 상생(S), 신뢰(G)의 전략방향

신한금융그룹의 Zero Carbon Drive는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 제로화를 지향한다. 또한 국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Triple-K 전략, 그리고 사회공헌사업 추진 전략인 Hope Together SFG 등을 통해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한다. 그 외에도 여성리더의 육성과 장애인·다문화사업 확대를 통한 사회 다양성 추구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축소하며 고객보호 관리강화 및 금융교육 확대로 신뢰경영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친환경 전략 「Zero Carbon Drive」

Zero Carbon Drive를 통해 동아시아 최초로 자체 탄소배출량 및 자산의 금융배출량에 대한 탄소중립까지 선언하였다. 단순한 방향성 선언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탄소중립 계량화 및 감축목표 설정

PCAF(탄소회계금융협회) 측정방법론을 적용하여 금융배출량을 측정하였으며, STBi(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 가이드선 금융회사 방법론을 통해 내부 및 외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탄소중립 및 기후리스크 관리

탄소배출량 상위 50개 기업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고탄소 집약도 기업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여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회 리스트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영향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 ESG 관점으로 심사·관리하고 있다.

ESG 거버넌스

2015년부터 이사회 내에 ESG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그룹 전체의 ESG 전략을 결의하고 추진성과 방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전 계열사의 CEO가 참여하는 ESG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의사 결정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한 TCFD, SASB, KRX 정보공개 가이드스 등의 공시표준과 보고체계를 통해 ESG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ESG 구동체계



* Chief Strategy & Sustainability Officer:
전략 및 지속가능경영 부문 총괄 임원



경영진 KPI

그룹 및 그룹사 CEO를 대상으로 ESG 성과를 평가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경영진은 그룹 KPI(계량지표), 전략과제(비계량지표) 달성도를 일정비율로 평가 받게 된다.

신한 SVMF ('22년 6월 현재 「신한 ESG Value Index」로 명칭 변경)

사회적가치 측정모델로서 또 다른 ESG 구동체계 중 하나이다. 사회공헌활동, ESG활동 등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가치와 영향을 화폐화된 수치로 측정한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ESG 국제표준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ESG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ESG평가 기반의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다양한 리포트 등을 통해 ESG기업 투자의 판단기준이나 자산운용의 ESG투자원칙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 | | |
|--------------------|---------------|-------------------|-----------------|
| NZIA | 탄소중립보험연합 | UNEP FI PSI | UN 지속가능보험원칙 |
| NZAMI | 탄소중립자산운용이니셔티브 | UNEP FI PRB | UN 책임은행원칙 |
| NZBA | 탄소중립은행연합 | TCFD |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 |
| VBA | 가치측정표준개발연합 | UN Global Compact | UN 글로벌 컴팩트 |
| SBTi | 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 | UNEP FI | UN 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 |
| PCAF | 탄소회계금융협회 | CDP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 Equator Principles | 적도원칙 | | |

UNEP FI

1992년 설립된 UN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로서 '22년 6월 현재 전세계 500여개 금융회사들이 참여중이며, 신한금융그룹은 UNEP FI 최고협의회인 '리더십위원회'의 아시아 유일 멤버 및 '글로벌 운영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banking 부문 대표로도 참여하고 있다.

COP 26

신한금융그룹은 197개 회원국이 가입한 UNFCCC(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의 제26회 당사국총회(COP 26)의 공식 금융행사(Finance Day)에 아시아 민간금융사 유일하게 초청 받아 신한이 친환경 전략인 Zero Carbon Drive에 대해 발표하였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가이드

ESG A to Z

Making a Better Tomorrow

발행일 2022년 7월

발행처 대한상공회의소

기획·디자인 디자인크레파스 (02-2267-0663)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02-6050-3473)으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와 협의되지 않은 책자의 수정 및 재가공은 금지합니다.



본 보고서는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